

리아호나

굳게 견디기 위한
18가지 방법, 25쪽

사도가 낙태에 대해
말씀하다, 14쪽

새 노래:
“주님 가족 주셨네”, 친12쪽





청 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성신의 도움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거룩한 의식들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애 동안 이러한 약속된 축복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균게 견디기 위한
18가지 방법”, 25쪽을 참조한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은: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러드, 조셉 비 위스리,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캔들
고문: 캐리 제이 코울먼, 케네시 존슨, 요시히코 기쿠찌, 더블류 더글라스 셴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윌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밥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엘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퍼키, 채드 패리스, 켈 유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설,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웨일

선임 비서: 로렌 류서

관리 미술 책임자: 엘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이로우, 클레트 네베게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자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김 핀스타마키,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킵트 엘 무어, 지니 제이 넬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11호, 제45권, 제10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8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박 환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장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감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속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 출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리투아니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October 2008 Vol. 32 No. 10.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2008년 10월호 리아호나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개발함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8 나의 신앙을 찾아 *조슈아 제이 퍼키*
- 13 방문 교육 메시지: 성별은 영원한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 14 낙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공격 *러셀 엠 넬슨 장로*
- 20 후기 성도의 소리
신앙은 있었으나 가진 돈이 없었다 *테오도로 트로코니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캔디스 코스톤*
나의 놀라운 꿈 *제프리 에스 로우*
희망을 멈추게 하는 신앙 *피르코 카시넨*
- 48 애독자 편지



13 방문 교육 메시지

14 낙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공격



표지
앞: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먼드.
뒤: 사진 삽화: 크리스티나 스미스
친구들 표지
사진 삽화: 데이비드 스토커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음 제언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의 신앙을 찾아”,
8쪽: 간증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조슈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더서 12:6을 읽고 이 구절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질문한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시험 받는가? 조슈아는 침례 받은 후 어떻게 신앙을 키웠는가? 가족들에게 서로 간증을 나누도록



2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개발함



권유한다.

“곧게 견디기 위한 18가지 방법”,
25쪽: 이 기사는 가정의 밤에서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다. 낱말 카드에 18개의 표준을 각각 적는다. 카드 하나를 뽑아 기사에서 해당 부분을 읽는다. 그 표준이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토론한다. 그런 다음 다른 카드를 뽑고 원하는 만큼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지침들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주어진 각각의 권고를 따르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 “신앙으로 나아감” 부분을 읽고 마친다.



러시아의 헌납, 그림: 에민 줄푸가로프

러시아 성 피터스버그의 후기 성도 예술가 에민 줄푸가로프는 1903년 8월에 있었던 행사를 기렸다. 당시 사도이자 유럽 선교부 회장이었던 프란시스 엠 라이만 장로(1840~1916)가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성 피터스버그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인 섬머 가든에 모여 러시아를 복음 전파 지역으로 헌납했다. 3일 후 라이만 장로는 모스크바에서 비슷한 헌납 기도를 드렸다.

이번 호에 숨겨진 에스토니아어 정의반 반지를
찾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어떻게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 25 굳게 건디기 위한 18가지 방법
- 38 목마를 주의하십시오 케네스 존슨 장로
- 42 질의응답: 저와 제 친구들은 남을 험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를 멈추고 친구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 44 해답을 가진 사람 돈 엘 설
- 47 포스터: 표준

부록: 청소년

질문 카드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카드



25 굳게 건디기 위한
18가지 방법



친10
도움을 주면 행복해요

“목마를 주의하십시오”, 38쪽: 사탄은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목마로 변장한다. 기사에서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읽은 후 집에 있는 책, 음악, 영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것을 집에 두어도 좋은가?”라는 제목의 게임을 만든다.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듣기 좋거나, 칭찬할 만한 것들만 보유한다.(신앙개조 1:13 참조) 모사이야서 5:15과 교리와 성약 45:32을 읽음으로써 마무리한다.

“도움을 주면 행복해요”, 친10쪽: 이 기회를 통해 집안 일 임무 지명 계획표를 만들고 이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도록 한다.(자녀들의 연령에

적합한) 몇 가지 집안 일을 열거하고, 각자가 할 일을 한 가지씩 선택하게 한다. 이야기를 읽고, 모두가 서로 돕는 것이 왜 중요한지 토론한다. 다가오는 주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목표를 세운다.

“선교 사업을 준비함”, 친14쪽: 가족들에게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가 선교 사업을 준비한 방법을 잘 들어 보라고 한다. 그가 감독에게서 받았던 권고를 읽는다. 각 가족 구성원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주는 방법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나 주의 종 되어 린다 크리스틴슨
- 친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생긴 일
- 친8 간증 장갑
- 친10 도움을 주면 행복해요 지니 랭카스터
- 친12 노래: 주님 가족 주셨네 매튜 날리
-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선교 사업을 준비함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 친16 색칠하기

친8 간증 장갑



이번 호의 주제들

페이지 수는 각 기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뜻합니다.	선교 사업 준비, 친14
친-친구들	선택의지, 26
가정 복음 교육, 2	성별, 13
가족, 28, 친12	성전, 20
간증, 8, 44, 친8	시련, 친6
감사, 27	신앙, 2, 8, 20, 21, 23, 36
개종, 8	십일조, 35
계시, 22	안식일, 34, 친4
교육, 27	언어, 31, 42, 친6
기도, 21	위안, 21
낙태, 14	음악, 30
대중 매체, 30	입양, 14
데이트하기, 31	자애, 32
방문 교육, 13	정직, 33, 친14
복장, 29	지혜의 말씀, 36
봉사, 36, 친2, 친4, 친10, 친16	초등학교, 친4
부모, 14	친구, 28
선교 사업, 8	표준, 25, 38, 44, 47
	험담, 42
	회개, 33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계발함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제가 항공기 조종사로 일하던 시절, 승객들은 이따금 제 비행기 조종석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스위치, 계기, 시스템과 작동 절차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렇게 거대하고 멋진 항공기를 날 수 있게 하는 데 이런 모든 기술 장비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탑승객의 편안함과 안전을 도모하려면 거대한 공기 역학 설계, 수많은 보조 시스템과 프로그램, 그리고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기본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저는 강력한 추진력과 상승력이 있고 항공기의 비행 자세만 바르다면 자연 법칙에 따라 항공기와 탑승객은 높은 산을 넘어 위험한 뇌우를 피해 대륙과 대양을 횡단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승객들과의 경험을 숙고하는 가운데, 저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최후의 때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과연 무엇이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할 것일까?

복음의 변하지 않는 핵심

교회는 조직 구조와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을 제공하여 가족과 개인들이 하나님과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복음의 핵심 교리와 원리보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더 가까운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조직의 절차, 프로그램, 정책, 그리고 규범은 우리가 지상에서 영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들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이와 대조적으로, 복음의 핵심인 교리와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본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모든 후기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능력과 힘과 영적인 자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권능의 중요한 원리이며,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권능의 근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권능은 대개 우리의 신앙에 따라 행사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야고보서 2:20) 그분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¹ 제게 이것은 참으로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올바른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더욱 더 영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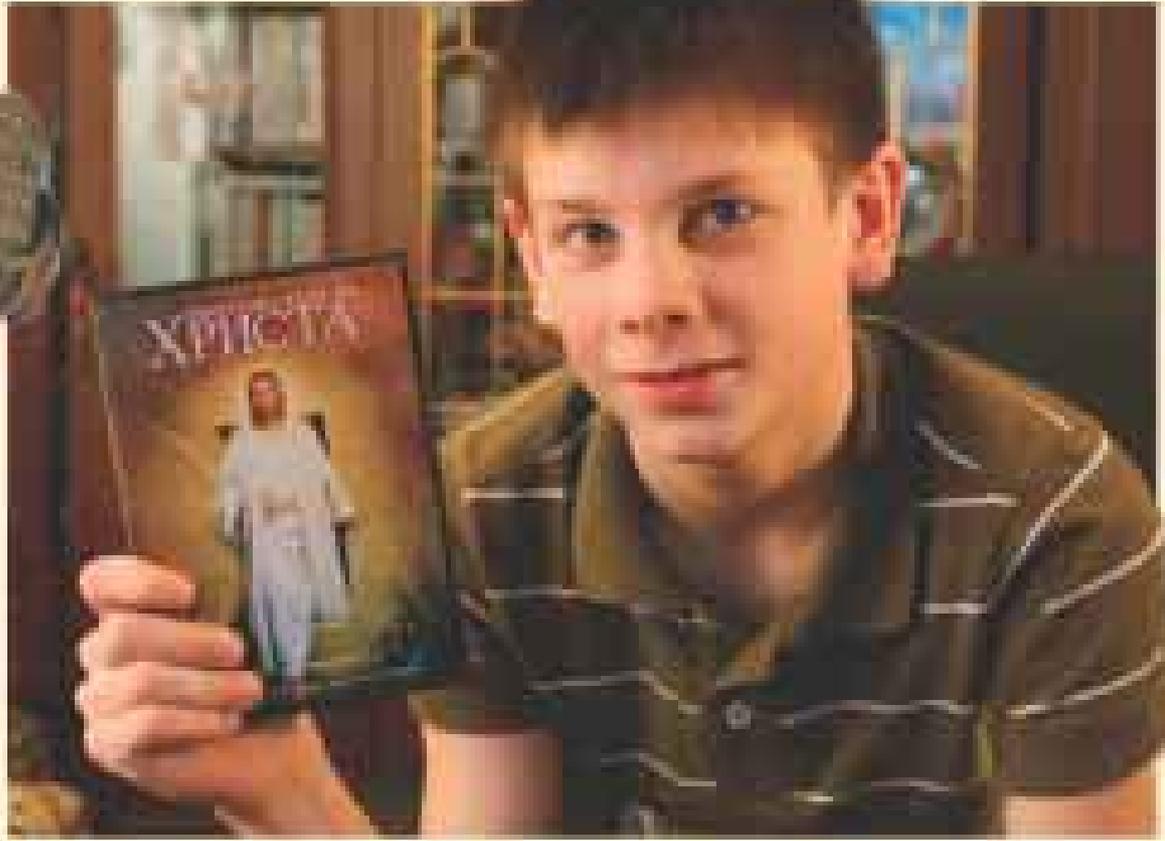


**복음의 기본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모든 후기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능력과 힘과 영적인 자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행함으로
 이룹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것입니다. 영적인 자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셨다는 교회의 기본 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도덕적 선택의지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생명에 버금가는 가장 큰 은사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도덕적 선택의지와 그에 따른 영원한 결과를 연구하고 상고해 볼 때, 저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그러므로 그에 따라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전세계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조직 구조는 회중 규모와 성장의 형태, 그리고 필요 사항에 따라 커다란 융통성을 갖게 해 줍니다. 그 조직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모임 수가 적은 기본 단위 조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봉사하기에 충분한 조직적 자원이 갖추어져 있는 규모가 큰 와드도 있습니다. 이 모두는 회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모로나이사

10:32) 교회의 영감 받은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선택 사항은 모두 동등하게 신성한 가치를 지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교리는 단위 조직 어디에서나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임된 증인으로서 그분이 살아 계시고, 이 복음은 참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지상에서 개인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충실한 자들의 힘

2005년에 제 아내와 저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방문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가 1837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충실한 회원들의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현재 그 대륙에는 4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세대들을 포함한다면 유럽의 총 회원 수는 쉽게 현재의 몇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초기 시절, 왜 그토록 많은 충실한 회원들이 조국을 떠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교회를 건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좀 더 나은 경제 생활을 위해, 성전을 가까이 두기 위해 등 그밖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이주가 낳은 후유증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세대에 걸친 충실한 교회 회원들의 힘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젊은 남녀와 부부의 수가 늘고 있고, 성전 결혼이 늘고 있으며, 회복된 복음을 나누려는 회원들의 자신감과 용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이 미치지 못한 영적인 공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회원들이 더 큰 용기와 신앙으로 복음대로 생활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그 공백은 틀림없이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로 채워져야 하고, 채워질 수 있으며, 또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 교회가 확산되면서, 현재 교회가 들어간 지 15년이 채 안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2005년 우리가 유럽을 방문하던 중, 저는 자신의 모국인 러시아에서 봉사하고 있던 선교부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회원이 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세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은 그 달에 지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따금씩 차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시행하려 했을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적은 수의 회원들과 함께 하며 그렇게 단기간에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은 복음의 교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입했을 때 우리는 한 가족이란 생각이 들었고, 포근함과 신뢰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소수였지만 모두가 구주를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원들은 서로 지지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며,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관심을 끈 것은 조직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었으며, 이 빛으로 인해 것처럼 선한 회원들이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교회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때로는 조직적인 상황이 완벽에 훨씬 못 미치지만, 회원들의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한 온전한 간증이 자리잡을 것입니다. 회원들이 경제적 난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 머물며 교회를 세울 때, 미래의 세대들은 그러한 용기 있는 현대의 개척자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1999년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에 찬 권고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시대에말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성전의 수를 늘리는 등 복음의 축복을 내려야 할 적기라고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회원들이 미국으로 이민하기보다는 자신의 조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오래 전의 권고의 말씀을 저는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회원들이 조국에 남아 그들 자신의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할 때, 그들 개개인과 교회 전체에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²

규모가 큰 와드와 스테이크 내에서 생활하는 회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간증의 중심을 교회의 사교적인 차원이나 훌륭한 활동, 프로그램, 또는 와드와 스테이크의 조직에 두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정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종 속의 안전

우리는 혼란과 재난과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진노가 온 땅에, 쉬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교리와 성약 115:6)가 될 곳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1910~2008)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덕스러운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의로움에 있습니다.”³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그의 사도들에게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주신 다음 가르침을 생각해 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19) 그것은 또한 십이사도의 성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



영장부다: 매가 총이행의 일부, 그랜드 캐니언, 콜로라도; 블라디미르 에르코프: 세련된 나무는 어부들의 일부, 시에몬 부이, 유대주, 아메리칸 포크스트라 있는 올타스 피인 아트 제로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성구에서 구주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삶의 기본 교리와 우선 순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먼저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능가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더 많이 닮고,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우리의 삶과 인격에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함으로써 그분의 복음을 배울 것을 권고하십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올바른 원리를 적용하고, 그에 뒤따르는 축복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간단합니다.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다음과 같은 두 단어로 말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계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원칙과 이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실천할 때 시험이 임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켰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즉 남편이나 아내로서,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아들이나 딸로서, 또는 우리의 우정, 직장, 사업 및 오락에 있어서 그러한 성품을 나타내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점차 “[그분] 앞에서 모든 거룩함 가운데 행[할]”(교리와 성약 43:9)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킬 때, 우리가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계발해야 할 그리스도와 같은 여러 가지 성품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겸손, 자애와 사랑, 순종과 근면, 신앙과 소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교리와 성약 4:5~6 참조) 이러한 개인적인 성품은 교회 단위 조직의 조직 상태, 경제적인 형편, 가족 상황, 문화, 혈통 또는 언어와는 별개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계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을 신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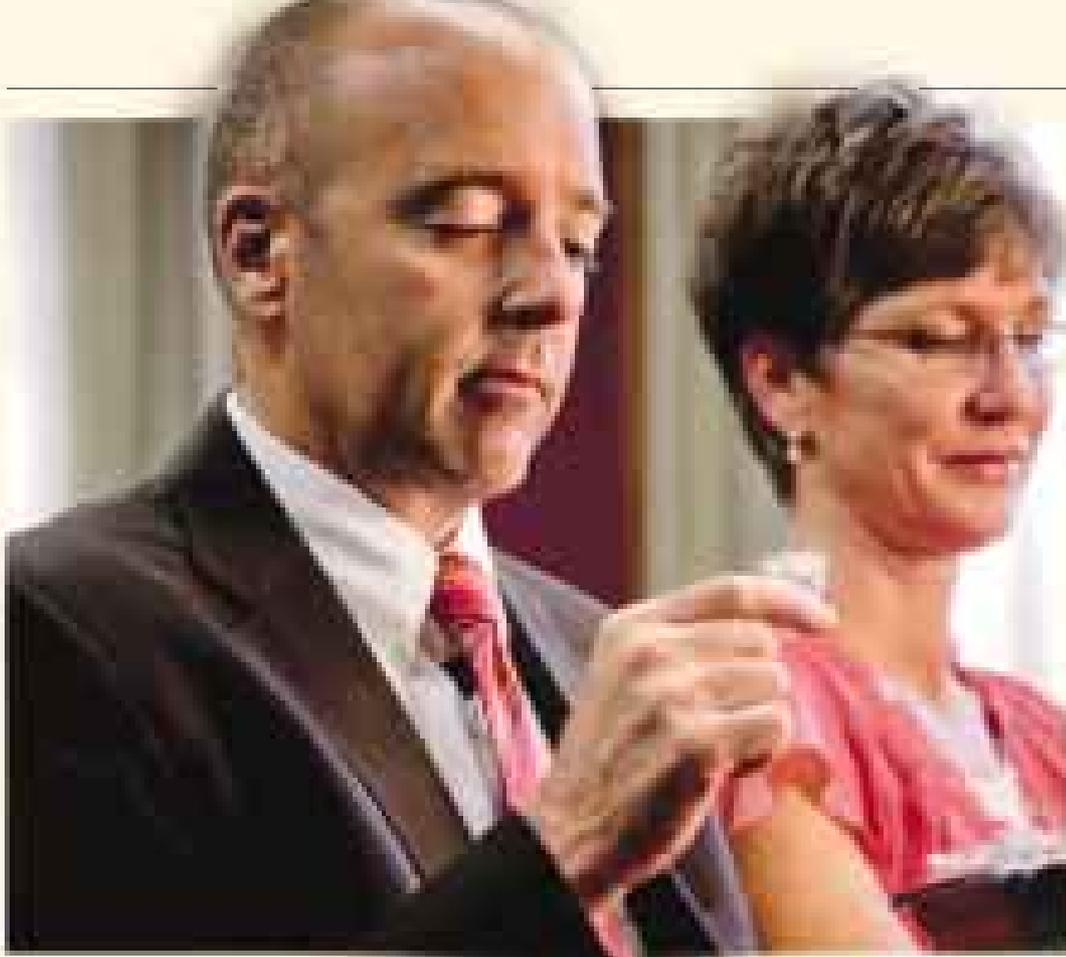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한 가지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값 없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 즉 그분의 무한한 권능, 예지 및 사랑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택의지를 의롭게 행사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행함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계명이 주어진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지킵니다. 구주를 더 많이 닮고자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종이 한 장을 들었다가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런 다음 그 종이로 비행기를 접은 후 부드럽게 던져 날린다. 종이의 변화를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위해 “우리의 날개 밑에서 바람을 일으켜 줄”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계발하는 것과 비교한다.
2.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교회에 처음으로 가입한 가족들에 대해 말하거나 그들의 사진을 보여준다. 그들이 평원을 건넌던지, 또는 단순히 교회에 가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 따라 충실하게 사는 길로 인도되었던지 그들은 개척자들이다. 그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신앙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를 줄 수 있는지 토론한다.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한 가지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값 없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 즉 그분의 무한한 권능, 예지 및 사랑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참된 회개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과 그분의 속죄의 축복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계발한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종들의 지시와 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과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의 정기적인 전 세계 연차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높은 곳”(교리와 성약 43:16)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힘과 지시와 축복을 느끼고 받습니다. 이때야말로 개인적인 영감의 음성과 계시로 우리의 영혼을 평화로 채울 때이며,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때입니다. 이 음성은 사랑하는 친구의 음성처럼 달콤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넘칠 때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구주를 더 많이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로마서 15:13)할 우리의 능력 안에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교리와 성약 25:10)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공기 역학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기본 사항에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기본 사항에 해당됩니다. 이는 우리의 날개 밑에서 바람을 일으켜 줄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걸음씩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계발할 때, 그 성품은 “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듯 [우리를 받들어 줄]”(교리와 성약 124:18)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동력과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며, 우리의 흔들림 없는 간절한 소망은 강한 상승력을 낳을 것입니다. 신앙과 소망은 우리를 유혹의 바다 건너, 고난의 산 너머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자 목적지로 무사히 데려다 줄 것입니다.

주

1.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에서, *Millennial Star*, 1851년 11월 15일, 339쪽, 존 테일러 인용.
2. 1999년 12월 1일자 제일회장단 서한.
3.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05쪽.



나의 신앙을 찾아

몇 달에 걸쳐 선교사들은 내게 침례 받을 것을
수 차례 권유했지만 나는 항상 거절했다.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19 89년에서 1990년 사이 내가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그해 어느 날 밤, 나는 친한
친구와 함께 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매트는 내 인생의 전환점 중 하나가 되는 질문을 내게 던졌다. “너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너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야.”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내 상황을 알아차린 그는 살짝 화제를 바꾸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매우 독특한 입장에 있었다. 나는 개신교회에 다니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이었으며, 비록 내가 가진 믿음과 종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심이 있던 했지만, 종교를 바꾸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일년 내내, 종교적인 대화를 피함으로써 조심스럽게 내 주변에 영적인 장벽을 쌓았다. 이 간단한 질문으로 내 친구는 마침내 내 마음에 조그마한 틈을 여는 데 성공했다.

신앙을 추구함

그 후 몇 달에 걸쳐,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문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지? 그보다 중요한 건, 나는 믿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 그분에 대해 알 수 있을까? 그분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후기 성도 친구들처럼 나도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진지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년 동안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몇몇은 후기 성도였다. 이들과의 우정 때문에 나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거의 매번 복음을 나누려는 그들의 시도를 밀어내 버렸다. 선교사들과 몇 차례 만났지만, 그들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

나는 뒤에 따를 변화가 너무나 두려웠다.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고립될 것만 같았다. 내가 틀렸다는 것이나 나의 전통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새 경전을 보이고, 오직 하나의 종교만이 참된 교회로서 그 설립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고, 비논리적이며, 이상한 것 같았다.

역설적이게도, 나는 내 자신의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진실성을 의심했다. 내 마음은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응답을 바라기도 했지만, 영의 속삭임이 내게 왔을 때 내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다.

1학년을 마친 후, 나는 켄터키 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학업을 계속했다. 나의 후기 성도 친구들은 곧 선교 사업을 떠났고, 그들이 내 곁에 없자 나는 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2년을 바치도록 영감을 준 그 확신을 나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동시에, 매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나는 스스로 진리를 알고 싶었다. 선교사를 만나 보라는 권유가 담긴 친구들의 편지를 받고, 마침내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개종을 고려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의 다양한 원리들이 하나의 단일화된 전체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에 대해 유보적이었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모두 진실이거나 아니면 모두 거짓일 것이므로, 내가 일단 한 원리에 대한 간증을 얻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나는 그들의 생각을 믿지 않았다. 나는 일련의 영적 및 교리적 의견들 가운데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 생각했다.¹ 동시에, 나의 논리는 신앙에 근거한 대화가 아닌 경험적인 증거를 증거로써 요구했다.

불행하게도, 내 논리는 나를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머물게 했다. 내가 생각한 모든 철학적 논쟁은 진정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연세주의와 다름없었다. 나는 그 이상을 원했다. 내 친구들과 선교사들이 성신과의 교통이라고 묘사한 그 방법으로 내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원했다. 나는 선교사들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또는 적어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선교사 토론에 참여했다.

선교사들은 인내심을 발휘했고 동시에 담대했다. 몇 달에 걸쳐 그들은 내게 많은 토론을 가르쳤고 침례 받을 것을 수 차례 권유했다.

나 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문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지?
그보다 중요한 건, 나는 믿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지? 그분에 대해 알 수 있을까? 그분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나는 빛이 비추기 전에 어둠 속에서 신앙의 발걸음을 땀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거절했다. 나는 그들의 권유를 기꺼이 받아들이기 전에 내게 증거를 줄 분명하고도 기적적인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증거를 받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권유를 계속해서 거절했다.

어느 날 장로들이 내게 물문경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이더서 12:6)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조슈아, 우리가 침례 받으라고 권유할 때마다 매번 거절하는군요. 형제님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침례 받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그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직 내 신앙을 시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시험해 보지 않고도 받을 것이라 믿으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간구하기만 했던 것이다.(교리와 성약 9:7 참조) 나는 기꺼이 다음 단계를 밟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영을 사실상 차단해 버린 셈이었다.

나는 빛이 비추기 전에 어둠 속에서 신앙의 발걸음을 땀 필요가 있었다. 확인해 주는 영은 내가 나의 신앙을 시험하기 전이 아니라 후에 오는 것이었다.²

선교사의 그 말을 듣고 내게 처음 든 생각은 그들이 내가 침례받게 하려고 교묘한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침례 권유를 거절하는 바로 그 순간, 무언가 어렴풋한 느낌이 내 마음을 떠났다. 그것은 나에게 선교사들의 권고를 따르라고 권유하는 고요하고, 부드럽고, 미묘한 화평의 느낌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느낌이 떠난 후 혼란과 불행감과 슬픔 가운데 남겨진 뒤에야 비로소 그 느낌의 존재를 인식했다.

나는 이 어렴풋한 느낌이 나를 떠나고 있는 영의 느낌인지, 그리고 내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나의 완고한 마음이 이 영의 느낌을 밀어내 버렸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나는 선교사들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 피할 수 없는 권유를 받아들인 후, 그들이 내게 약속한 대로 내가 영을 느낄 수 있다면, 침례를 받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영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선교사들에게 그저 농담이었다고 말할 작정이었다.

씨앗을 시험함

다음 약속이 있던

저녁, 우리는 새로운 교회 비디오 *탕자(The Prodigal Son)*를 보았다. 그 방 안에는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 선교사들은 감동받은 모습이 역력했고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몇 가지 경전 구절을 읽었다. 마침내 크리스필드 장로가 나를 향해 물었다. “조슈아,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침례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주저한 뒤 “네”라고 대답했다.

영은 내 팔에 난 털들이 쭈뼛 설 정도로 전기같이 임하여 나를 일깨웠고, 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쳤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신앙을 시험했으며, 내가 침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좋은 신앙의 씨앗에 대한 간증을 얻었으나, 아직은 그것이 자라 결실을 맺는 것을 보거나(엘마서 32:35~36 참조) 복음의 다른 원리들에 대한 증거는 받지 못했다. 내 신앙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침례를 받고 확인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마음에는 서서히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침례 받았다고 결심했을 때 가졌던 그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신앙에 근거한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던 나의 예전 논리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이윽고 나는 좀처럼 떠나지 않는 혼란과 슬픔을 다시 느꼈으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내 신앙의 시험이 어느 방법으로든 나의 혼란을 해결할 때까지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남아 배운 원리들을 적용하겠다고 결심했다.

나의 신앙을 찾음

주님은 나를 혼자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나는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매주 전도하러 나갔을 때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나를 가르쳤다. 나의 가정 복음 교사는 충실했다. 나의 가정 복음 동반자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이었다. 많은 와드 회원들은 나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으며 저녁식사와 가정의 밤에 초대함으로써 우정을 쌓았다. 그들은 나와 함께, 또한 나를 위해 기도했다. 감독님과 그분의 가족들은 내게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었다. 나는 그들 마음의 정직한 의도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것은 내 결심을 강화시켰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물문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순종이 먼저 그 다음에 빛

“진리의 기초를 쌓는다는 것이 너무 간단하게 들리므로 여러분은 왜 모든 사람들이 기초를 쌓는 데 성공하지 못하는지 의아해 할 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한 가지, 큰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다는 느낌과 빛이 임하는 증거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것, 즉 신앙만으로 자신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순종이 먼저 오고, 그런 다음에야 확증해 주는 느낌, 진리의 계시, 빛의 축복이 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A Life Founded in Light and Truth”, *Ensign*, 2001년 7월호, 9쪽.

선교사 토론과 침례 권유를 받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미묘하고도 친숙한 화평의 느낌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영이었다. 내가 “이것이 영이라면 이 책은 참된 것이 분명해”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미묘한 느낌이 내 마음 속에 부풀어 올랐고, 나의 신앙은 그 원리에 대한 영적인 지식으로 향했다.

내 마음이 계속해서 더욱 “상한” 마음이 되고 내 영이 더욱 “통회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이더서 4:15 참조) 확신을 주는 다른 경험들이 뒤따랐다. 곧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내 지성이나 타인의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영에 말해 주는, 부인할 수 없는 영의 임재하심에 의해 알게 되었다. 교훈에 교훈이 나의 마음을 열었다. (니파이후서 28:30 참조) 이 확신의 경험들은 서로를 더욱 강화시켰고, 복음에 대한 나의 이해는 넓어졌으며,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는 더욱 빨라졌다. 각각의 경험은 부지런함과 기꺼이 듣고 따르려는 마음, 그리고 영의 속삭임에 순종하려는 소망을 요구했다. (모사이야서 3:19 참조)

이제 나는 복음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복음이 이상하고 비논리적으로 보이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복음이 친숙하고 훌륭하게 여겨진다. 복음 원리들은 참으로 모두가 하나의 큰 전체에 상호

빛

이 비추었으며,
계속해서 나의
길을 밝히고
있다. 이제 나는 복음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연결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교리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선교사로서 나는 이 진리들을 간증할 수 있었다. 교리에 대한 나의 지식이 넓어지면서 간증 또한 커지고 있다.

복음의 여러 원리들에 대한 나의 간증은 악에 대항하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방파제는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양육된다. 간증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나를 지탱해주며, 특히 내가 이미 대답을 받은 것들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는 악마의 노력이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준다.(교리와 성약 6:22~23 참조)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의심이 고개를 들 때, 고통이 머물 때, 나는 간증을 얻은 첫 날부터 열매를 맺어 온 똑같은 규범을 적용한다. 곧, 각각의 간증을 키울 수 있었던 경험들을 상고하고, 내가 배운 원리들을 실천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며, 영이 내 신앙을 재차 일깨워 줄 때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복음은 모두 참되며,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 신앙의 발걸음을 땀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구주의 빛은 항상 그곳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찾고자 하지 않을 때에만 감추어진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두운 시간이나 우리의 간증이 도전을 받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기꺼이 구주를 찾을 때 구주의 빛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그 빛을 지속적으로 구할 때 그것이 우리를 개종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주

1. 글렌 엘 페이스, "Follow the Prophet", *Ensign*, 1989년 5월호, 26쪽, 참조
2. 보이드 케이 페커, "물론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간결하고 진귀한 것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쪽 참조.



성별은 영원한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선택한다.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성별은 왜 본질적인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큰 관점에서 본다면 성별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 지상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신성한 목적을 위해 남성과 여성의 영은 서로 다르고, 구분이 분명하며, 또한 상호 보완적이 됩니다. ... 행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영적,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능력의 독특한 결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입니다”,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51~52쪽)



줄리 비 벡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하나님의 영의 딸로서 여성은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첫 교훈을 받았으며, 지상에 ‘정하신 때에 나오도록 예비 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38:56) 그들은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다 기뻐 소리를 질렀[던]’(욥기 38:7)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교리와 성약 138:55)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이 지상에서 ‘시험’ 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아브라함서 3:25) 그들은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의로운 남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지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지상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은 다가올 세상에서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모성”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6쪽)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기렛 디 네이들드 자매, 전 본부 청년 회장: “하나님의 여성들은 결코 세상적인 여성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완강한 여성들이 많으나 우리에게 부드러운 여성이 필요하며, 세상에는 거친 여성들이 많으나 우리에게 친절하고 명성 있는 여성들이 많으나 우리에게 신망이 있는 여성이 필요합니다.”(“여성이 되는 기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8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남성과 여성이 지닌 전세와 현세의 본성은 하나님에 의해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 [때때로 여성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성의 가치는 오로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만 전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모든 의로운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선함과 힘을 믿고 신뢰합니다. ... 여러분이 왕후가 되고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의로운 여성”,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34~35쪽) ■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과 창조주에 대한 깊은 경외심 없이 순수한 어린아이를 안고, 그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고, 작은 손가락을 만지고,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낙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공격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시작에 앞서, 유쾌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독자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말하는 전쟁의 본질은 말씀 전달에 있어 그만큼의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생명을 그분께서 주신 선물로 소중히 여깁니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은 그분의 자녀들이 육신을 얻고, 지상에서의 경험을 얻으며, 영생의 상속자로서의 신성한 운명을 깨달을 기회를 줍니다.¹

전쟁으로 인한 사망률

생명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경외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전쟁과 관련하여 생명을 잃는 것을 애석하게 여깁니다. 자료를 보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8백만 명 이상의 군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2천 2백만 명 이상의 군인과 여성이 사망했습니다.² 14년에 걸친 이 두 전쟁은 전세계적으로 최소한 3천만 명 이상의 군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숫자에는 수백만의 민간인 희생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매년 제1차 및 2차 세계 대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 또 다른 전쟁에 비하면 그 수가 약소합니다. 세계적인 보고에 따르면 매년 4천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³

낙태라 불리는 이 전쟁은 무방비 상태에 있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전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문명화된 사회가 이러한 시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교리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다음의 신성한 계명을 반복해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⁴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⁵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기 전에도, 사리에 밝은 사람들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6세기의 개혁가인 존 칼빈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들판에서 죽이는 것보다 집에서 죽이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죽이는 것은 더욱 잔학한 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⁶

인간이 만든 규칙들은 이제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만은 절대적인 진리를 완전히 그릇된 것을 시행하도록 부추기는 간략하고 명확한 슬로건으로 왜곡하고 변형시켰습니다.



특별한 염려

산모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임신 중절을 해야 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며, 특히 현대 의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극은 무고한 여성의 선택의 자유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태는 산모의 육체 및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한 낙태 또한 매우 드뭅니다.

일부 사람들은 태아가 선천적 기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낙태를 주장합니다. 물론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 특정한 감염이나 약물이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임신 중절을 고려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생명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가치가 있습니다. 더욱이, 결과는 생각했던 것처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감당해낸 한 부부를 잘 기억합니다. 그 여성은 당시 겨우 21세로 아름답고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임신 초기에, 그녀는 풍진에 감염되었습니다. 자라나는 태아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낙태를 권했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사랑에 찬 관심도 없이 낙태에 대한

압력을 더했습니다. 부부는 한 마음으로 감독과 상의했습니다. 감독은 스테이크 회장에게 그들의 일을 알렸으며 스테이크

회장은 그들이 근심하는 바를 들은 후, 비록 아기가 문제를 안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아기의 생명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다음 성구를 인용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⁷

그들은 그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청각이 손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청각 장애아 학교에 자녀를

보내던 중, 부모는 그녀가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으며 유명한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약 4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훌륭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장애 가능성 때문에 개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논리를 가진 정책이라면 이미 그러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숨도 거두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생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그런 불경스러운 태도는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요구에 따른 낙태

제가 말씀 드린 특별한 상황에서 낙태가 행해지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⁸ 대부분의 낙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처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 행해집니다. 이러한 낙태는 단순히 산아제한의 한 형태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의한 낙태는 여성이 자신의 육신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많은 나라에서 법제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나 여성 각자에게 있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자유가 있습니다. 계획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행동을 취하고 나면, 결코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주 비행사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할 우주인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동안에는, 그는 언제든지 프로그램에서 물러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주선이 발사되면, 그 우주인은 우주 여행을 하겠다는, 그가 이미 내린 선택의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되는 길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과정을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임신이 이루어질 때, 그 선택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육신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는 선택을 하든 아기를 갖는 선택을 하든, 여행을 위한 그녀의 선택은 선택의 결과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낙태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개인의 선택권”은 그것이 마치 최고의 덕인 양 부각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이 관련됐을 경우에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권리가 다른 개인의 권리를 경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낙태는 오로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태아를 중절시키는 데는 별개의 육신, 뇌, 및 심장을 가진 두 개인이 관여됩니다. 자신의 육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은 태아의 생명, 그리고 그녀의 자녀가 생애 동안 취하게 될 선택들을 빼앗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단순히 수단으로서의 선택이 아닌, 올바른 선택을 옹호해야 합니다.⁹

낙태에 관한 거의 모든 법령은 임신 기간을 고려합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저는 두 개의 특별한 세포가

우 주선에 탑승할 우주인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동안에는, 그는 언제든지 프로그램에서 물러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주선이 발사되면, 그 우주인은 우주 여행을 하겠다는, 그가 이미 내린 선택의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되는 길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라나는 태아를
중절시키는
데는 별개의

육신, 뇌 및 심장을 갖고
있는 두 개인이 관여됩니다.
자신의 육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은 태아의 생명, 그리고
그녀의 자녀가 생애 동안
취하게 될 선택들을 빼앗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가져와 하나로 결합될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고 배웠습니다. 이 염색체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 형성되는 유전 암호의 결합과 관련된 놀라운 과정 속에 DNA 구조가 형성됩니다. 새로운 존재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두 개의 세포가 결합되고 약 22일이 지나면 작은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26일경에는 혈액 순환이 시작됩니다.¹⁰ 성장하는 생명을 언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할지 법제화한다는 것은 제 견해로 볼 때 주제 넘고 상당히 방자한 일입니다.

낙태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관계 없이 통치 국가에 의해 합법화되었습니다. 경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만 번성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합니다.¹¹ 개인은 신앙으로 생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번성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 땅을 지었나니, 바로 내 손으로 한 일이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나의 것이니라.

“그리고 ...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그러나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

“무릇 땅은 충만하고 거기에는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¹²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변함없이 낙태에 반대해 왔습니다. 100여 년 전에,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후기 성도들에게 태아 살해와 영아 살해 실행에 대해 거듭 경고하는 바입니다.”¹³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1895~1985)은 재임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드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대해 변함없이 반대해 온 교회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강간에 의한 임신과 산모의 건강이 낙태를 하지 않을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유능한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¹⁴ 현재의 정책에는 두 가지 다른 예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근친상간



그리고 유능한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살 수 없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외라 하더라도 낙태가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감독과 상의하고 기도를 통해 성스러운 확인을 받은 후에만 고려해야 합니다.”¹⁵

입양

왜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줄 수 있는 생명을 멸합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죄가 되는 방법으로 생명이 창조될 때, 개인적인 회개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은 심각한 죄에 또 다른 심각한 죄를 더하는 일은 슬픔만 키울 뿐입니다. 입양은 낙태에 대한 좋은 대안입니다. 사랑받으며 양육될 수 있고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에 그 아기를 입양시킴으로써 아기와 양부모 모두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가능한 것임

이미 낙태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낙태를 행함으로써 죄를 짓고 현재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된 바로는 낙태의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¹⁶ 우리는 주님께서 참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압니다.¹⁷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과 창조주에 대한 깊은 경외심 없이 순수한 어린아이를 안고, 그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고, 작은 손가락을 만지고,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순진무구한 생명은 파괴되기

입양-어린이를 축복하는 사랑에 찬 결정

“우리는 ...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안정된 가정에 자녀를 입양시킨 미혼 부모에 대해 지지를 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어린이들을 입양하는 결혼한 어머니, 아버지들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합니다.

“어린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 서약을 존중하는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양육되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과 안정적이고 발전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필수적입니다. 입양을 선택할 때, 미혼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입양은 아이와 친부모, 그리고 양부모를 축복하는 이타적이고 사랑에 찬 결정입니다. 우리는 입양을 통해 자녀와 가족들을 강화하는 모든 사람을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제일회장단 성명, 2006년 10월 4일.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분이 주신 것이며 당연히 그분만이 끝내실 수 있습니다.¹⁸ 저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생명도 영원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8쪽 참조.
2.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15판(1998년), "World Wars, The," 참조.
3. 마리아 청, "Abortion Just as Common in Nations Where It's Illegal," Salt Lake Tribune, 2007년 10월 12일, A7쪽. 미국에서 매년 출생하는 사람의 수는 대략 3백만에서 4백만 사이이다. 같은 기간 동안의 낙태 건수는 백만이 넘는다. 그것은 그 나라에서 서너 명 가운데 한 명은 낙태된다는 의미이다.
4. 출애굽기 20:13; 신명기 5:17; 마태복음 5:21; 로마서 13:9; 모사이사서 13:21; 제3 니파이 12:21; 교리와 성약 42:18~19 참조.
5. 교리와 성약 59:6.
6. 존 칼빈,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Arranged in the Form of a Harmony, 번역본(영어), Charles William Bingham, 22 권.(1979년), 3:42.
7. 잠언 3:5~6.
8. 어빈 엠 쿠쉬너 박사 연설,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에게 Judiciary에 관해 연설함, Constitutional Amendments Relating to Abortion, S.J. 17~19, 110, 97차 국회, 첫 번째 모임, 1981년, 158쪽 참조.
9. 델린 에이치 옥스, "올해의 더 중한 바,"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17~19쪽 참조.
10. 제이 윌리스 히스트 외, 편집본, The Heart, 4판(1978년), 7쪽 참조.
11. 레위기 26:3~13; 여호수아 1:7~8; 열왕기상 2:3; 열왕기하 18:5~7; 역대하 24:20; 26:5; 31:21; 욥기 36:11~12; 니파이전서 2:20~21; 4:14; 니파이후서 1:9, 20, 31; 4:4; 5:10~11; 에이름서 1:9; 옴나이서 1:6; 모사이사서 1:7; 2:22, 31; 엘마서 9:13; 36:1, 30; 37:13; 38:1; 45:6~8; 48:15, 25; 50:20; 힐라맨서 3:20; 제3니파이 5:22; 교리와 성약 9:13 참조.
12. 교리와 성약 104:14~17.
13. 존 테일러와 조지 큐 캐넌, "Epistle of the First Presidency" 1885년 4월 4일; 제임스 알 클락 편찬,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권(1965~1975), 3:11.
14. 스펜서 더블류 김블, "A Report and a Challenge" Ensign, 1976년 11월호, 6쪽; 또한 "The Time to Labor Is Now" Ensign, 1975년 11월호, 6쪽 참조.
15. 교회 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단 및 감독단(2006년), 186쪽.
16. 교회 지침서 제1권, 186쪽.
17. 예레미야 31:34; 히브리서 8:12; 10:17; 교리와 성약 58:42 참조.
18. 신명기 30:20; 사도행전 17:28; 교리와 성약 88:13; 모세서 6:32 참조.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표에 적힌 금액은 정확하게 내가 필요로 하던
금액이었다.

신앙은 있었으나 가진 돈이 없었다

테오도로 트로코니즈

19 88년 말에, 나는 베네수엘라 시우다드 오에다에서 감독단 제2보좌로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었지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나는 교회 회원이 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성전에 가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하루는 근처 도시인 마라사이보에서 한 친구가 방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트로코니즈 형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네가 성전에 가서 그분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어.”

“난 갈 수가 없어. 베네수엘라에는

성전이 없고 외국 여행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난 돈이 없는걸.”하고 내가 대답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정말 성전에 가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거야.”

나는 대답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도움을 주신다면 가겠어!”

그 순간부터 나는 성전에 갈 수 있으리라는 신앙과 소망으로 가득 찼다. 다음날 나는 스테이크 지도자들에게 전화했는데, 당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페루 리마 성전 방문이 1월쯤에 계획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행 비용은 항공료와 숙식비를 포함하여

16,500 볼리바레였다.

시간은 흘러갔으며, 돈을 입금해야 하는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왔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지만, 필요한 금액을 모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전에 일하던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5년 전에 이 석유 회사에서 일을 했었죠.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 정산이 조금 잘못되었던군요. 와서 당신의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나는 수표를 받으러 갔다. 그 위에 적힌 금액을 보았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금액은 정확하게 16,500 볼리바레였다!

1989년 1월, 나는 페루 리마 성전에 가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친구의 말이 옳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성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다. 니파이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의 자녀들이 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진대, 주께서는 능히 그들을 위하여 그의 뜻대로 만사를 행하실 수 있으”시다.(니파이전서 7:12)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캔디스 코스톤

추 가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2년 전에 딸을 낳은 후 암 선고를 받았었다. 그 후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러 가는 중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련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저는 딸을 잘 키우고 싶고 언젠가는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를 낮게 해 주옵소서.”

눈물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갑자기 내 기도는 “어린이의 기도” 가사로 바뀌었다.¹ 무엇인가 내게 그것을 소리 내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기도하라
주 들으시리

병 원으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딸을 잘 키우고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분께서 나를 낮게 해 주시도록 기도했다.



주의 사랑
너를 감싸리라
기도하라

압도하는 듯한 사랑의 느낌이 내게 다가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염려하시며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음날 검사 결과를 받았다. 암의 징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나타났다. 나는 커다란 짐을 내려 놓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의사는 내게 어제의 검사 결과는 암의 징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혈액검사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암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하고 내가 물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느꼈을까?

나는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의심을 버리려고 애썼다. 이 결과는 내게 아직 암이 아직 남아 있을 뿐 아니라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차 안에서 내가 했던 경험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가 느낀 것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실은 압도적인 것이었으며 진지한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아직도 이 시련에서 뭔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활동적인 후기 성도이긴 하지만 종종 어떤 일들을 진지한 마음에서보다는 습관적으로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영적인 수준에 있지 않았다. 나는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좀 더 가까이 가게 해 줄 부분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시련을 견디기 위해 그분의 힘이 필요했다.

영적인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에게 대해 지니신 계획을 믿는 나의 신앙이 커졌다. 나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경험한 것이 참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응답을 깨닫고 받아들일수록,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모든 일이 잘 될지를 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신체적으로 결코 완전히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고 있다. 내 생명은

진정으로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7년이 지났다. 나는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암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생명은 이어지고 있으며 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나의 시련과 더불어, 둘째 딸을 포함한 축복들이 주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주님의 응답이 아직도 나를 위로한다는 것이다.

최근 소식: 암 진단을 받은 지 8년이 지난 후, 코스틴 자매는 최근 검사를 통해 암의 징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주

1. 어린이 노래책, 6~7쪽.

나의 놀라운 꿈

제프리 에스 로우

몇년 전에 있었던 고속도로 사고에서 나는 여러 군데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 때문에 나는 3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가족의 도움과 함께 신권 축복은 나를 치료한 의사 중 한 명이 “놀라운 회복”이라 부른 그 일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머리 부상은 나의 단기 기억력을 약화시켰고 나는 더 이상 꿈을 기억할 수 없었다. 가끔 나는 잠에서 깨어 “오, 꿈을 꾸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꿈은 내 생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 사고가 있고 17년 후, 나는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 받았다. 부름 받고 나서 가진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 초등학교 회장은 한 부부를 정의반 교사로 부름 것을 추천했다. 보좌와 나는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그 부부 중 자매는 불규칙적으로나마 교회에 참석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여러 해 동안 참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들이 부름에 대해 고려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날 밤, 나는 생생한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때, 나는 꿈을 완전히 기억했다. 그것은 그들이 봉사할 부름을 받아들일도록 내가 접견에서 해야 할 말이었다. 나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꿈을 기억하게 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흥분과 의욕을 가져다 준 꿈의 내용이었다.

그날 저녁 감독단 보좌가 나를 차로 데리러 왔다. 약속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서 그가 말했다. “감독님, 감독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가 할 말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미소 지은 것을 기억한다. 접견을 하는 동안 나는 정확하게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다. 그들은 2년 후에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특별한 꿈은 지난 28년 동안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꿈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부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알고



와 드에서 부부에게 부름을 주면서, 나는 전날 밤 꿈에서 들은 말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꿈에서 본 것을 되풀이했으며, 부부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집으로 오는 길에 보좌가 말했다. “저는 방금 대가에게서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즉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훈련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 한 번 미소 지었다.

그 남편과 아내는 초등학교 부름을 헌신적으로 수행했으며, 와드에서

계셨음을 확신한다. 그 결과 그분은 초등학교 회장에 영감을 주셨고,

어느 날 밤, 부분적으로 상실된 나의 기억력이 완전히 기능하도록 축복해 주셨다. 나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의 영원한 목적들은 그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진행되어갈 것임”(몰몬서 8:22)을 깨닫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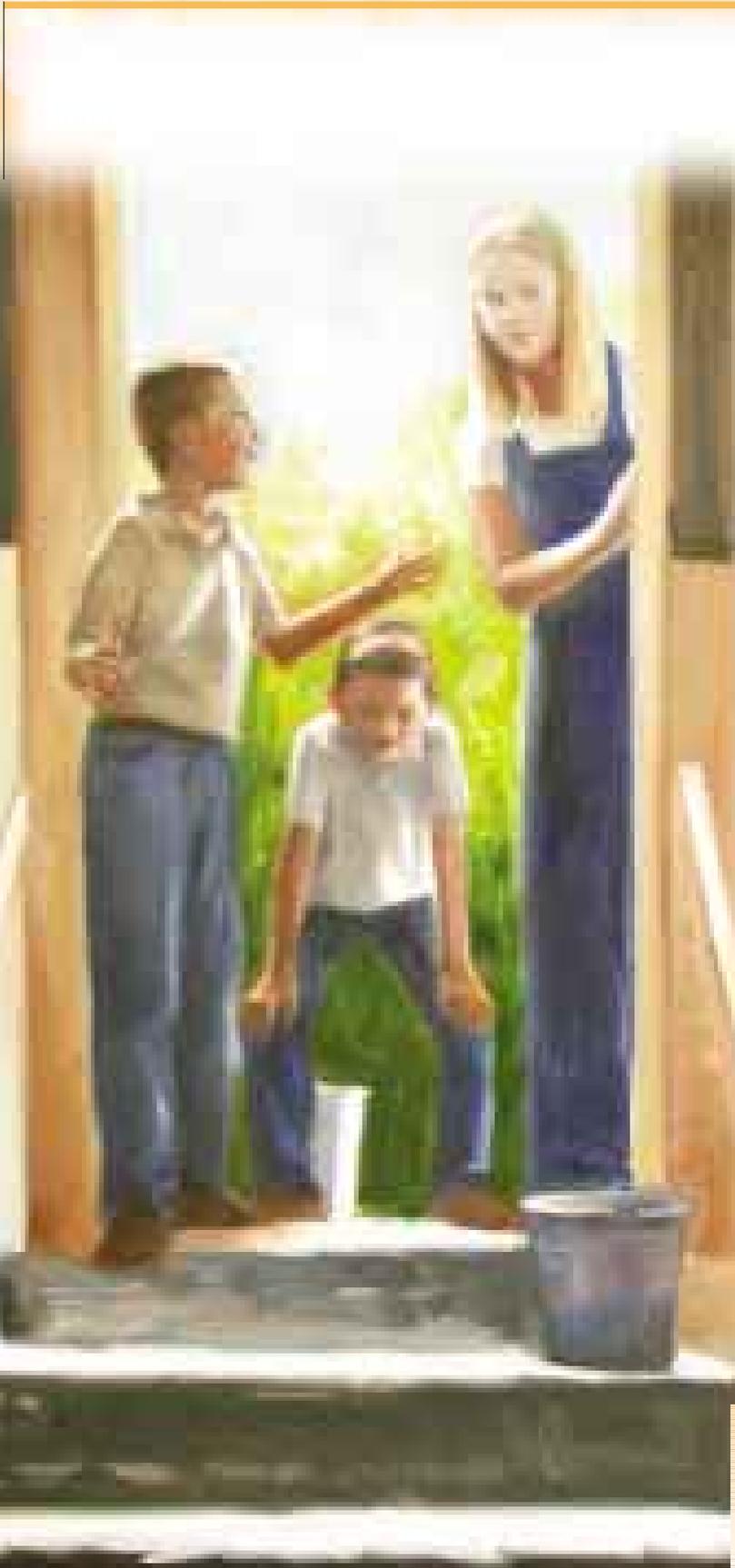
홍수를 멈추게 하는 신앙

피르코 카시넨

핀란드 헬싱키에서의 어느 봄날이었다. 태양은 찬란히 빛나고 있었으며, 눈은 빠른 속도로 녹고 있었다. 여러 시간 동안 나는 여덟 살 된 아들 주하와 여섯 살 된 아들 하누와 함께 녹은 눈이 지하실로 흘러들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녹아 내리는 물을 흘러 보내야 할 배수구는 아직도 꽂꽂혀 있어 있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면서 물이 지하실에 넘쳐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 가야 할 시간인 오후가 되도록 열심히 일했다.(당시에는 초등학교를 주중에 했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에게 지하실로 물이 넘치는 것을 막으려면 초등학교에 참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게다가 남편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하와 하누는 한 목소리로, 만일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이 지하실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녹아 내리는 물과 신앙으로 충전된 아들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내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능력도 물이 지하실로 넘쳐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교회에 가서는 안 되는데”라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 속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런 후 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나는 물통에 담긴 물을 쏟으며 “자, 이제 초등학교에 가자!” 하고 외쳤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아이들의 신앙에 상처 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재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의 두려움은 커졌다.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재빨리 지하실 문으로 뛰어갔다. 지하실을 내려다보면서 아이들이 외쳤다. “엄마, 이것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나도 그곳으로 뛰어갔다.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곳은 마치 걸레질을 한 것처럼 완전히 말라 있었다. 어느 곳에도 물의 흔적은 없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내가 본 것을 믿기 힘들다.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에는 기쁨과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비쳤다. 내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찼다!

세상의 어떤 힘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길 수 없다. 경전은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다.(마태복음 17:20 참조) 그날 아이들의 신앙은 홍수를 멈추게 했다. ■

나 는 어떤 힘도 물이 지하실로 넘쳐 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의 아들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곧게 견디기 위한 18가지 방법

제 일회장단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권고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계명과 선지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 몇

가지가 이 소책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이 진실함을 간증합니다.”(2001년, 2쪽)
다음 몇 장에 나타나는 가르침은

여러분이 이 소책자에 담긴 표준과 원리들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모범이 될 것입니다.

삽화: 달린 마쉬, 별도로 표기된 것 제외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선택의지와 책임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의로움과 행복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여 좋은 일에 사용하십시오. 나태를 피하고 부지런히 일하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구름 위에서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본부 청남 회장

일 마 전 저는 소형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탑승 준비 중 한 승객이 조종사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도에서 비행하게 될지 물었습니다. 그는 2,900미터 고도에서 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구름 바로 위를 날게 될 것입니다. 구름 밑에서는 좀 덜컹거리겠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면 훨씬 순조로운 비행이 될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우리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과 연료가 필요했고 약간의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비행은 대부분 순조로웠습니다. 잠시 동안 난기류가 있었고 조종사는 비행 상태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비행은 훨씬 편안했습니다.

이후 저는 조종사의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훨씬 순조로운 비행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인생 자체에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세에 사는 동안 후기 성도의 삶을 살아 가려면 우리가 뚫고 올라가야 할 추악하고 천하며 사악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뚫고 올라갈 때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난기류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노력과 의지, 용기가 필요하며, 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난기류에는 우리를 둘러싼 대중 매체에 담긴 부패가 포함됩니다. 그것에는 “육에 속한 사람”(모사이야서 3:19)이 겪게 되는 낙담, 절망,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한다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주어진 표준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은 훨씬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 동안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여정의 끝에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정이 무사평온하고 완전히 평화로우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약속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으며, 어려움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정 내내 경계를 늦추지 말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현세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생에서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옵니다.



감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말에 감사의 영이 깃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지 금은 지상 생활을 하기에 매우 좋은 때입니다. 무한한 기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들도 있는 반면,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과 사람들을 인도하는 성직자들과 성공한 결혼 생활과 희생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도움을 주는 친구 등 의로운 분들과 의로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마음 속에 감사하는 태도를 키울 때,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높이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함이 심각한 죄에 해당된다면 감사는 가장 고결한 미덕에 포함됩니다. ...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우리는 이곳에 있는가? 이 생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감사하는 태도,” 리아호나, 2000년 5월호, 4, 8쪽.

교육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준비를 하십시오. 교육을 받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세미나리에 참석하십시오.

미래를 위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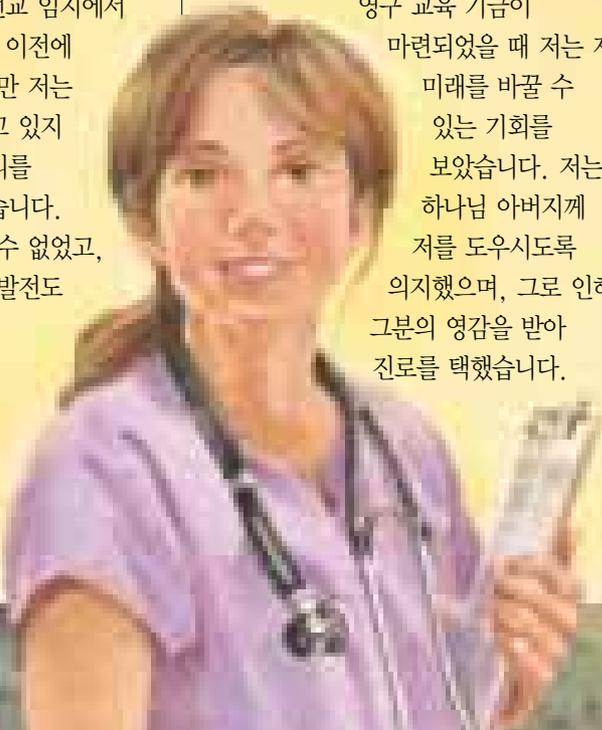
모니카 산토스 데 올리베이라

저는 취업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품고 선교 임지에서 귀환했습니다. 이전에 일해 본 경험이 있긴 했지만 저는 아무런 자격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고, 저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발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비를 낼 수 없었고, 저희 가족은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영구 교육 기금이 마련되었을 때 저는 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도우시도록 의지했으며, 그로 인해 그분의 영감을 받아 진로를 택했습니다.



저는 간호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노력과 헌신을 요하는 학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호학에 대한 저의 열정은 커졌습니다. 졸업한 지 3개월 만에 저는 브라질 알라고아스에서 손꼽히는 병원 중 한 곳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위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학 상급 과정을 공부할 계획이며, 다른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이에 따른 축복을 얻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영구 교육 기금의 대출을 조금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가족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맡은 바를 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고 친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십시오.

제

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¹

흥미롭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 기반한 이 단순한
진리들은 때때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교회 밖의 십대들 또한 영성과 가족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합니다.
2007년, 미국의 대규모 대중 매체 두
기관은 12세부터 24세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청소년들은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부모에게 크게 의존한다.”
- “청소년들은 점점 더 영성과 신앙을



크리시안 라이프: 제인

통해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가족
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점차
대두될 것이다.”

조사 결과의 요약 문구 중 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가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이전
세대들보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음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결혼과 가족에 대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놀라웠다.”²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 Associated Press/MTV Research and Strategic
Insights, *Happiness*, 2007년 8월 20일자 참조.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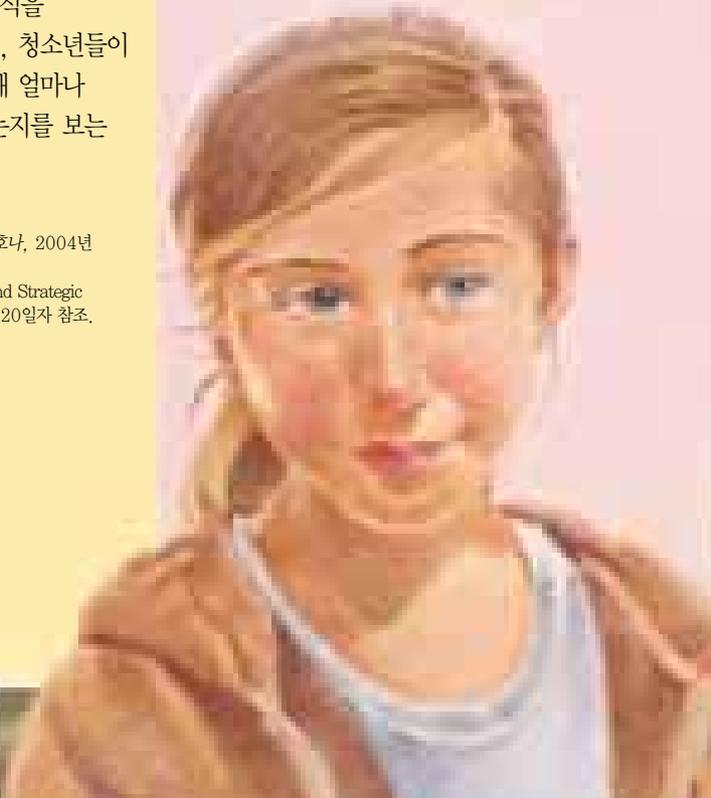
여러분의 높은 표준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택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십시오.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을 교회 활동에 초대하십시오.
개종자들과 저활동 회원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나도 그들 중 하나일 수 있었다

익명
제가 일곱 살 때, 한 소녀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같은 것을 좋아했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낮은 표준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릇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듬해, 저는 더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제 친구와 제가 여전히
친구라는 점이었으며, 저는 그녀와 함께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저는 늘 좋은 친구를 선택하고



높은 표준을 유지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간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는 것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 내내 그리고 8학년 한해 동안 우리는 예전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고 각자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따른 축복을 그 해 나중 무렵에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친구들이 학교에 술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자아이들도 술을 마시게 설득했고 그 아이들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그들 중 하나일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였다면, 저의 믿음을 굳게 지킬 힘이 제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면하게 되었을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저는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중독으로 인해 힘들어했을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에 처했을 수도 있으며, 부모님의 신뢰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지신 신뢰를 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께서 높은 표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그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복장과 외모

정숙한 복장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존중을 나타내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복장에 대한 표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문신이나 몸에 구멍을 뚫는 일로 여러분의 신체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어머니와의 쇼핑

레베카 리치터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저는 마음에 꼭 드는 검정 스커트를 찾았습니다. 저는 스커트를 입고 나와서 어머니께 보여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키, 내 생각엔 조금 짧은 것 같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 학교 여자아이들 전부가 비슷한 스타일을 입고 있고 이보다 훨씬 짧은 옷을 입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 어머니가 그 스커트를 마음에 들어 하시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무 짧아. 안되겠다. 가서 갈아입거라.”

저는 어머니께서 왜 그토록 엄격하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제가 무엇을 입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쇼핑은 그렇게 끝이 났고 우리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베키, 그 스커트를 사지 못하게 한 건 네게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스커트는 너무 짧았고 네가 정말 누구인지를 보여 주지 않았단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잖니.”

어머니의 설명은 제 기억에 항상 남을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이며, 제가 하는 일이나 입는 것 모두는 제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구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냅니다.

정숙한 복장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저버리고 제 기준을 타협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세상과 같은 복장에 대한 열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락과 대중 매체

여러분을 고양시키는 오락을 선택하십시오. 품위 없거나 부도덕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외설스러운 모든 것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표준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너 무나도 많은 종류의 오락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고양시키는 오락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입니다.

1. 비디오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기 전에 관람자 분류 등급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2. 관람자 등급과 상관없이 게임 또는 영화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영이 떠나도록 하는 것은 모두 피하십시오.

3.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밖으로 나가거나, 꺼 버리거나, 내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4. 정신적으로 고무해 주며 여러분을 고양시켜 주는 게임, 영화 및 음악을 찾아보십시오.
5. 텔레비전, 휴대폰, 컴퓨터와는 먼 세계, 즉 하이킹, 자전거 타기, 새로운 기술 습득, 또는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 등을 경험해 보십시오.

6. 활기찬 정신과 건강한 육신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활동을 즐기십시오.

대 중 매체를 선택하는 데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은 듣기 좋거나 혹은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13조)

음악과 춤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부도덕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미화하거나, 추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음악을 듣지 마십시오. 상대방과 신체를 완전히 밀착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나 동작을 취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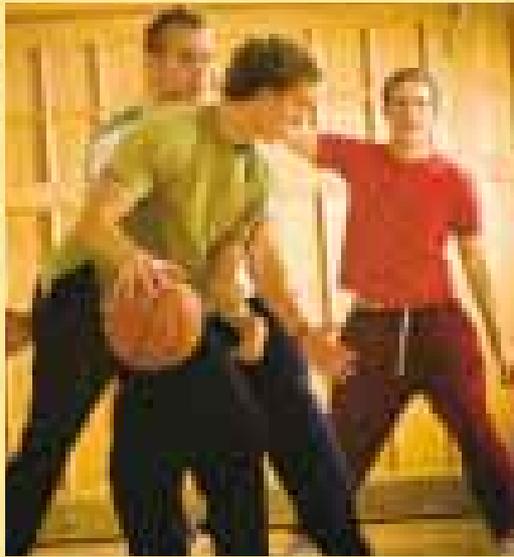
청 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시끄러운 현대 음악으로 마음을 채울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와 연주를 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그 생각에 따라 장단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그러한 음악, 즉 단정치 못하고 불경하며, 부도덕한 것들을 탐닉할 때 스스로의 품성을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악은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심이사도 정원희 회장, “합당한 음악, 합당한 생각”, 리마호나, 2008년 4월호, 33쪽.

찬송가를 듣거나 노래를 다운받거나 음악에 대해 더 알고자 한다면 www.lds.org/churchmusic을 방문하십시오.





언어

다른 사람을 고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나 경건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상스럽고 천박한 언어를 사용하지 하십시오.

“대 회란 마스한 사교 활동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밝을 수 있습니다. 진지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상스럽거나 거칠거나 저속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한 말을 써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욕을 하거나 저속한 말을 쓰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는 표현의 풍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

“욕하지 마십시오. 신성 모독을 하지 마십시오. 소위 천한 농담을 피하십시오. 저속하고 더러운 말이 섞인 대화를 멀리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며, 그러한 모범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년),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지 말라",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51쪽.

맨위 왼쪽: 삽화: 캐리 헨리; 왼쪽: 원곡: 삽화: 스킵트 그리어; 위: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맨위 오른쪽: 삽화: 라이언 스토킨

데이트

최소한 만 16세가 될 때까지는 데이트하지 마십시오. 높은 표준을 갖고 있는 사람과만 데이트하십시오. 데이트를 시작할 때에는 두 쌍 이상이나 또는 여럿이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 가까이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계획하십시오.



“제가 맞춰 볼게요. 첫 번째 데이트죠?”

가장 좋은 그룹 데이트는 잘 계획되었으면서도 격식이 없으며,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창의력을 활용하십시오. 사람들은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해 주는 다양한 활동을 좋아합니다. 부모님과 친구들, 또는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그룹 데이트를 위한 아이디어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 부근의 사탕 공장, 치즈 공장, 또는 그밖의 흥미로운 장소를 견학한다.
- 사람들에게 특정한 음식 또는 재료를 지정하여 각자 음식을 조금씩 마련해 오는 파티를 준비한다.
- 가까운 공원에 가서 새에게 먹이를 주거나, 산책을 하거나, 원반을 던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소풍을 즐긴다.
- 박물관이나 수족관, 또는 동물원에 간다. 무료 또는 할인 티켓을 구하려면 신문이나 인터넷을 확인해 본다.
- 봉사 활동 데이트를 한다. 이웃집에 떨어진 나뭇잎을 청소하거나 창문을 닦거나 그밖의 다른 일을 돕는다.
- 좀 더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근처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함께 책을 돌려 본다.
-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산다면 함께 정교한 눈사람을 만들어 본다. 해변 근처에 산다면 모래성을 지어 본다. 또는 각각 따로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선택해 달라고 해도 좋다.



성적인 순결

여러분 스스로를 성적으로 순결하게 지키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성적 관계도 갖지 마십시오. 성적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나 활동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강간이나 근친상간, 또는 기타 성적 학대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인간의 애정 행위의 문제에 관한 한,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법적으로 결혼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가 없이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고집한다면,

미래에 진정한 사랑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며 사랑할 여러분의 능력에 대한 열망과 육체적 애정 행위에 대한 열망을 둘 다 손상시키는 영적, 심리적 고통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고이 간직했어야 할 것을 허비해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볍게 버린 덕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 날, 여러분이 영원한 동반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최선의 상태의 여러분 자신, 즉 깨끗하고, 순결하며, 상대방의 그러한 순결에 합당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42쪽.



회개는 강력한 비누



하지만 깨끗해지는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이사야 1:18 참조)

회개

구주의 속죄를 통해 여러분은 회개할 때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십시오. 심각한 죄를 범했다면 감독에게 그러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즉 매일매일의 죄 사함과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청결하며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베드로전서 1:19)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피를 흘리신 그분 앞에 설 때, 깨끗한 손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82쪽.

사진: 크레이그 다이먼드

정직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주님께 정직하십시오. 부정직을 옳다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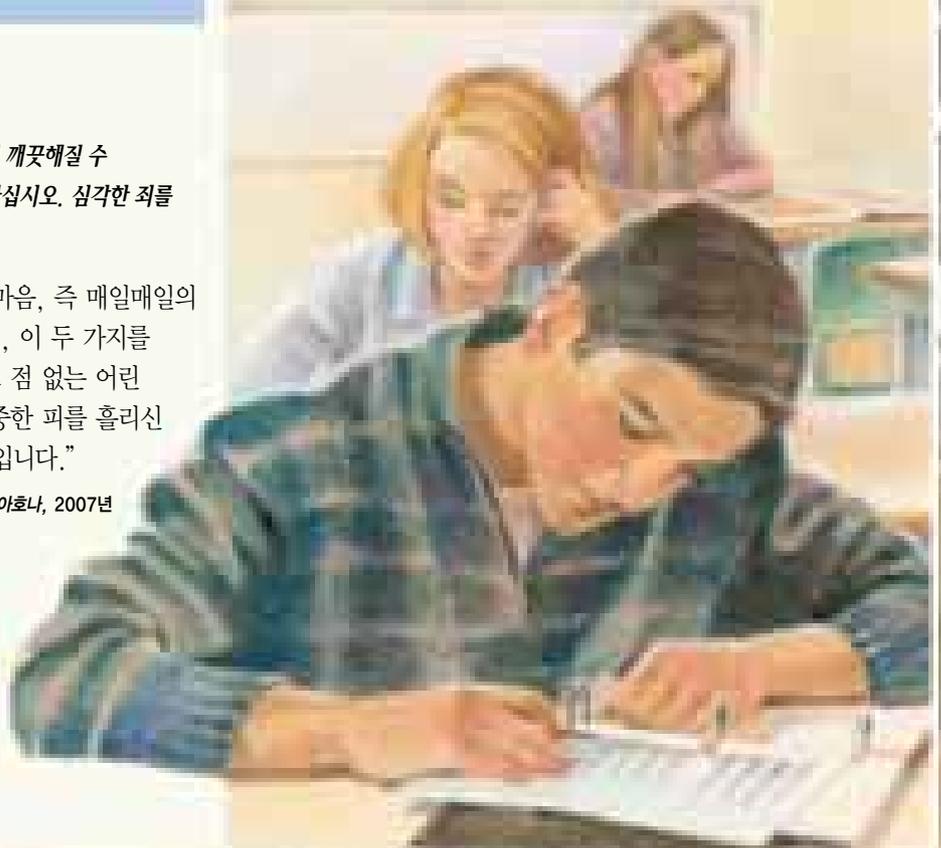
“정직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대로 생활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학교에서의 부정 행위는 자기 기만의 한 유형입니다. 우리는 배우려고 학교에 갑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과 지식을 손쉽게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

“훔치는 일은 세상 어디에서든 흔합니다. ... 훔치는 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게 물건, 차, 스테레오, 씨디 플레이어, 비디오 게임기, 기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고용주의 시간과 돈과 상품을 훔치는 것 ... 값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도둑질로 귀중한 것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무엇이건 훔친다는 것은 신권 소유자가 할 일이 못 됩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1920~2007), 제일회장단 제2보좌, “정직-도덕 나침반,”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41~42, 43쪽.



안식일 준수

주님을 경배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가족과 더욱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안식일을 활용하십시오. 안식일에 오락 거리를 구하거나, 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에머 위더스

여러분은 일요일에 그냥 교회에 가기 싫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그랬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새 와드로 이사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와드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거나 비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고향 친구들이 아닐 뿐이었습니다.

와드에서의 첫 번째 일요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찬식에만 참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교회에 늦게 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지나 걸어 들어갔을 때 몇 명만이 인사를 건넸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데 고향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오직 예전의 와드, 나를 잘 아는 친근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연사가 일어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연사는

마치 제게 이야기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도시에서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비단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후 두 번째 연사가 제게 개인적인 의미를 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기 바로 전, 감독님이 일어나셔서 그분이 우리 각자를

교회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폐회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러한 평안을 느껴 보지 못했으며, 그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 사항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날 제가 필요로 하던 것을 주셨으며, 저는 제가 그분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킨다면 항상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나타내는 표시



참조]

[“어린 시절,] 저는 안식일에 정확히 어떤 활동이 적합한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구약에 나오는 두 개의 구절을 통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출애굽기 31:12~13; 에스겔 20:12, 19~20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제 품행은 그분에 대한 제 존경, 그리고 그분과 맺은 제 성약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저는 안식일에 우리가 하는 활동을 생각할 때 그것이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표시로 여길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활동은 적합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Reflection and Resolu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1989~1990년 Speeches에서(1990년), 6쪽.

십일조 및 헌금

온전한 십일조를 기꺼이 내십시오. 십일조 결산에 참여하십시오. 금식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축복을 받는 편을 택하겠어요!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남 미 북부에 위치한 나라 가이아나에 있는 후기 성도 신대들이 십일조와 헌금에 대해 말합니다.

“저는 축복을 받는 편을 택하겠어요!”라고 조지타운의 프라샤드 나가르 집회소에서 열린 세미나리 수업 중에 시미온 러벨(14세)이 말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조금 전 말라기 3:8~12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므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지만 십일조를 바치는 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약속된 모든 것을 보세요. 보호를 받고 번영하고 하늘 문이 열릴 거예요.”라고 또 다른 반원인 사이언 키피스(16세)가 말합니다. 같은 조지타운에 위치한



식량을 제공하는 등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볼 때, 저도 헌금을 후하게 냄으로써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서인도 제도 선교부의 다른 지역에 위치한 트리니다드 포트오브스페인 아리마 지부의 커퓨 알리(17세)는 비록 수입은 적지만 10퍼센트를 십일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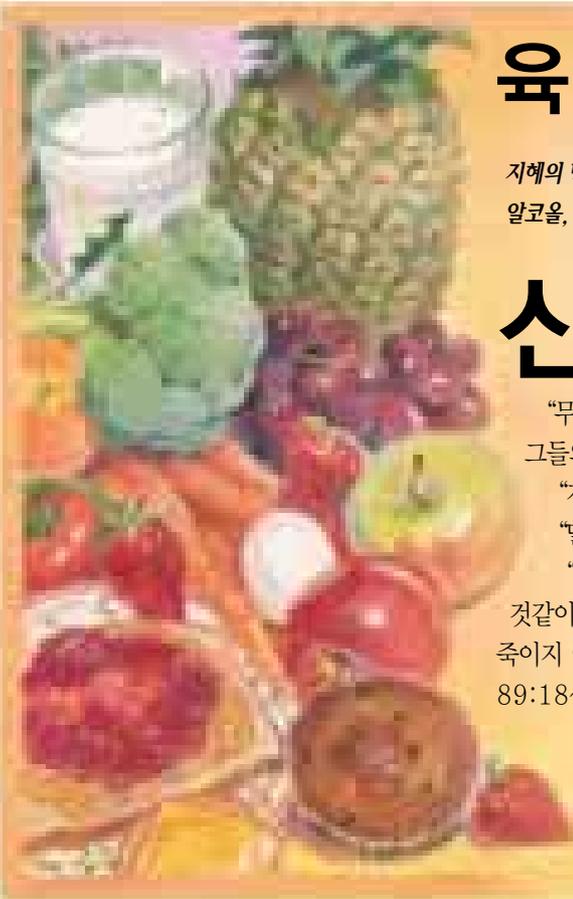
가든파크 제2와드의 클린트 켈린더(17세)는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 중 작은 부분만을 돌려 달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십일조를 기쁜 마음으로 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지진 해일이나 태풍, 또는 다른 재난이 있을 경우, 교회가 옷과

내고 금식 헌금도 낸다고 마크 멩그레이(17세)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내게 축복을 주실 수 있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마크에게 십일조 결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냈다고 말할 때 얼마나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마크는 빈 헌금 명세서 용지를 보면서 말합니다. “네가 좋아, 커퓨. 나는 내일 교회에 십일조를 가져올 거야.”





육체적 건강

지혜의 말씀을 준수하십시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마약, 알코올, 커피, 차, 또는 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처방 또는 비 처방 의약품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신체를 건강히 유지하는 것은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준수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릇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 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같이 그들을 지나칠 것이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18~21)

여러분은 지혜의 말씀에서 행하지 말라고 한 부분을 알고 계시 테지만, 행하라고 한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교리와 성약 89:10~17을 읽고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봉사

교회 부름을 통해, 그리고 가정과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 사항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알기 위해 성신의 인도를 매일 구하십시오.

베냐민 왕은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모사이야서 2:17)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한 마음과 사랑입니다. 다음은 봉사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조언 및 제안 사항입니다.

1. 가족을 위한 봉사가 최우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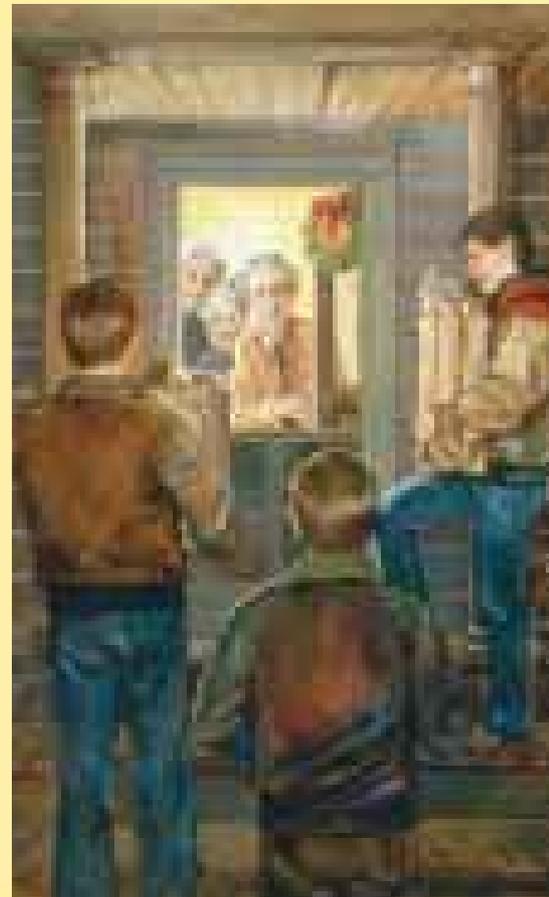
2. 여러분이 하는 봉사가 개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하십시오.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려해 보십시오.

3. 봉사 활동은 단순하게 하고,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4. 미소, 명랑한 태도, 경청, 진심 어린 칭찬, 그리고 조용한 친절의 행위는 봉사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5. 모사이야서 4:21에 나온 권고를 기억하고 적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아끼지 말고 나누십시오.



신앙으로 나아감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충실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개인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으십시오. 성약을 지키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시련과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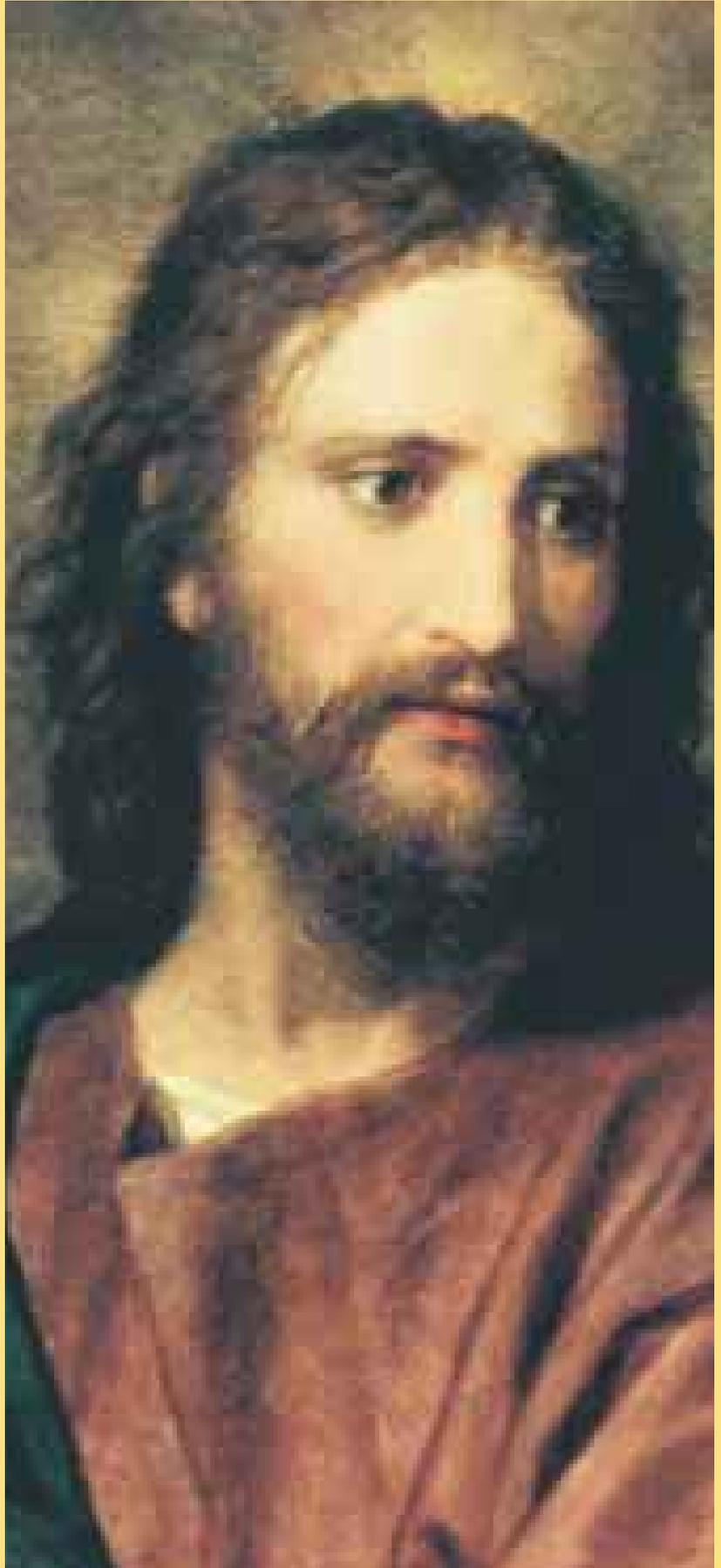
본부 청년 회장단

지금이 바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을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표준들을 정확히 따름으로써 신앙을 행사할 때, 여러분은 더욱 행복해지고, 복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약이 아닌 자유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약속된 축복을 거둘 것이며, 또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여러분 위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며, 항상 그를 기억하라는 침례 성약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젊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행사하고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니파이, 조셉 스미스, 롯, 그리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그의 선지자들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신앙으로 행했습니다.

여러분은 고결한 상속권을 지닌 고귀한 세대이자 운명의 세대의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빛과 선을 찾고 있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은 모범과 지도력을 발휘할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여러분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마태복음 5:16) ■



목마를 주의하십시오



왜 우리는 교회 활동에 대한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적절한 영향력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케네스 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의 행동과 행위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학 시절에 참여했던 한 토론에서 진행자가 직장 환경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예로 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어떤 환경은 직원들이 더 활기차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만드는 반면 어떤 환경은 그 반대의 효과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제게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또한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려는 찰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배가 고팠고 모두 음식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식욕은 방의 조명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명을 변화시키자 많은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았고, 일부는 아주 조금만 먹었으며, 놀랍게도 식사를 즐긴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명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매력을 상실하는 것을 생각하면 환경이 우리의 행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짐작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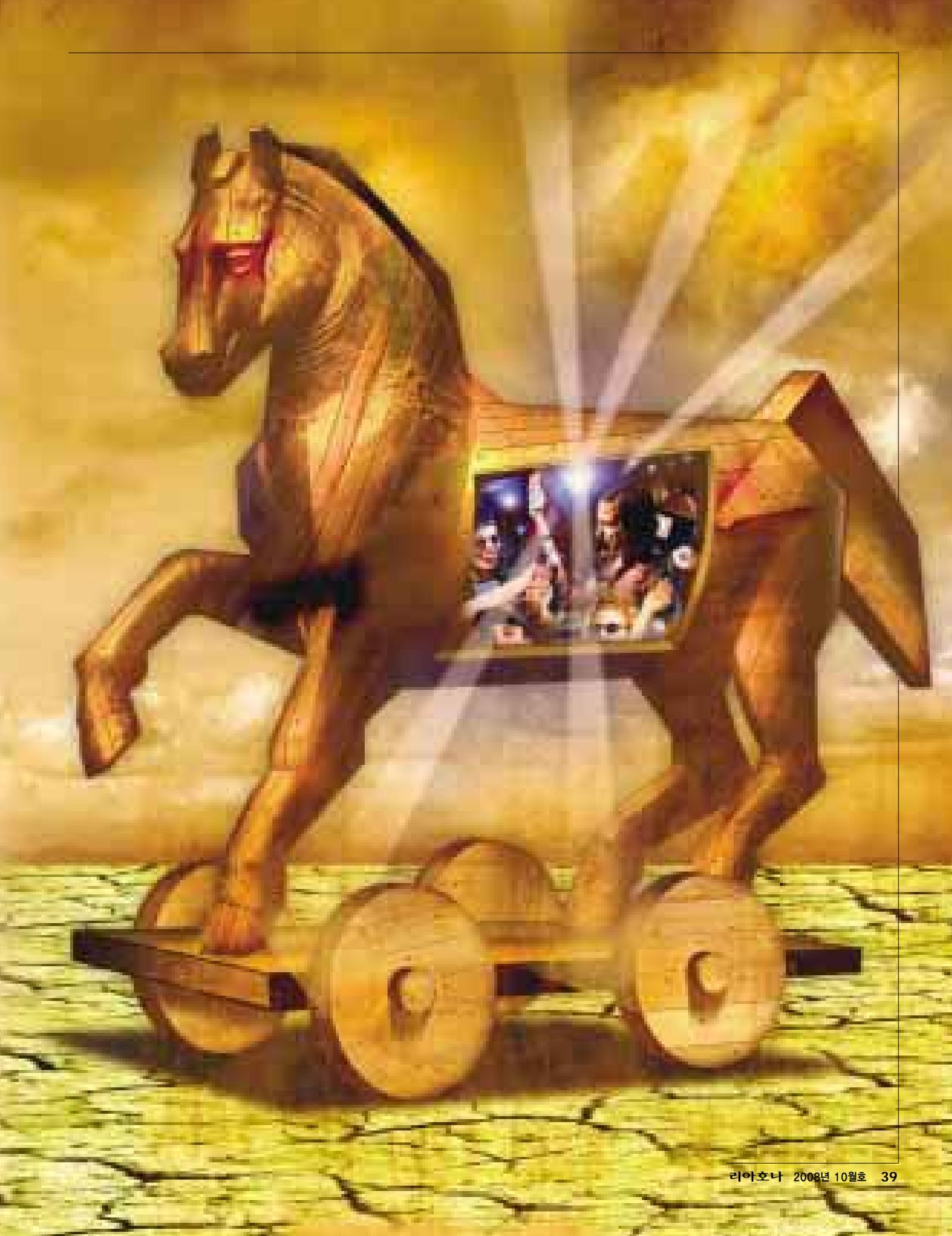
있습니다.

수년 후, 저는 저의 직업상 한 고객으로부터 그가 새로 창업하는 사업에 대해 보증을 들고자 하니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가 개업하는 것이 나이트클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구를 지나 주요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그곳의 실내장식에 감탄했습니다. 비품과 장식들, 커튼과 카펫이 조화를 잘 이루어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장소의 용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업주와 함께 자리에 앉아 필요한 정보를 나누던 중, 그의 직원 하나가 와서 음향 및 조명 시스템을 시험해 보아도 될지 물었습니다.

제 고객은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방안의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조용하던 공간이 알록달록 번쩍이는 불빛과 엄청나게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물렸습니다. 차분하던 느낌은 그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우리는 다시 입구 쪽으로 나왔습니다. 뒤이은 토론과 그곳에서 겪은 제 경험으로 인해 저는 그 건을 진행하는 것이 편치 않았고, 그래서 그 고객을 해당 업종에 관한 보험



우리의 표준을 높이고 세상적인

영향을 덜어냄으로써 건전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에 참여합시다. 표준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가슴에 남는 추억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는 그 어두운 공간에서 번쩍이던 광선들과 쿵쿵 울리던 요란한 음악이 방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꿔 놓았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든 활동이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도자들이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권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교회 활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전하고 우리를 고양시키는 교회 활동에 관한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트로이의 목마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에 매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 성을 10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 견고한 요새를 함락시키지 못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인들은 퇴각하는 척하며 뒤에 거대한 목마를 남겼고 그 목마안에 군사들을 매복시켰습니다. 트로이인들은 그 목마가 상서로운 징조라고 생각했고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마를 성벽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밤중에 그리스의 전사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성문을 열었고, 그리스 군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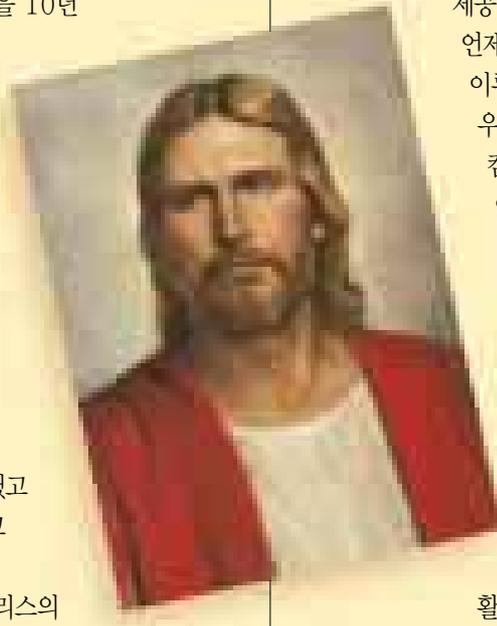
들어와 트로이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방패를 파괴하기 위해 방어벽을 뚫으려고 모의하는 세력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예배하는 장소들은 부적절한 세상적 요소들에 의해 일어나는 폭풍우로부터 피난처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하며”(모사야 5:15) 언제나 “거룩한 곳에 서[게]”(교리와 성약 45:32) 해 줄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면 건전치 못한 음악을 듣고 부적절한 활동을 하게 되어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접하는 것은 본래 난공불락이었던 요새 안으로 목마를 들여 놓듯, 우리 내면에서부터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유행을 모방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건 교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적용되며 우리가 볼 영화나 이용할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다른 여가활동을 정할 때 우리가 따르는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행사인 경우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교회 건물이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함”(신앙개조 13조) 활동들을 위해 헌납되고 성임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구주께서





참석하신다면 그분의 반응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내쫓으실 때와 비슷할까요?(마태복음 21:12~13 참조) 아니면 베드로가 변형의 산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마태복음 17:4) 라고 말씀하실까요?

전임선교사로 봉사할 사람의 자격요건에 대한 고든 비 힝클리(1910~2008년) 회장님의 권고는 이 주제에 적용됩니다. “저는 자격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 특히 청남들로 하여금 자제력을 발휘하고, 세상의 낮은 표준 위에서 생활하는 것과 범법을 피하며, 모든 활동에서 높은 표준을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¹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표준을 높이고 세상적인 영향을 밀어냄으로써

건전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에 참여하겠다는 결심을 합시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우리의 사교 모임의 즐거움을 감소시키고 행복을 없애 버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반대일 것입니다. 표준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가슴에 남는 추억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

주

1. 고든 비 힝클리, “선교 사업”, 전세계 지도자 훈련모임, 2003년 1월, 17쪽.

“저와 제 친구들은 남을 험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를 멈추고 친구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욕 하는 버릇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험담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고 다른 말을 선택하도록 선의의 격려를 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언어를 사용할 때, 정중히 그 자리를 떠나거나 대화 주제를 바꾸십시오.

“욕하는 [또는 험담하는] 버릇을 들였다면 그것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변화하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하십시오.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릇된 것으로 알고 있는 말들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할 말을 하십시오.”

이 소책자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관해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말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훌륭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언어”[2001년], 22~23쪽)

친절하게 대화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며 여러분이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스스로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황금률

험담은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며 큰 상처를 줍니다. 누군가의 험담에 관련된 “최신 뉴스”를 친구들에게 퍼뜨리는 것이 멋있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옆에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가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그것을 말해도 괜찮다고 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험담을 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제3니파이 14:12) 여러분의 친구들이 험담을 하고 있다면 부드럽게 주제를 바꾸십시오.

제시카 제이, 16세, 미국 애리조나 주



험담을 치료할 약

험담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연관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자입니다. 험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십시오. 험담이라는 병을 치료할 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구들이 험담을 시작할 때 주제를 바꿉니다. (2) 조용히 하여 말상대가 되어 주지 않습니다. (3) 솔직하게 “서로 비방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야고보서 4:11)

버트 에이, 22세, 캄보디아 프놈펜

이곳에 실린 대답들은 도움을 주고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함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피함

힘담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감정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담을

할 때 우리는 사탄이 누군가의 평판을 망가뜨리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나쁜 버릇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활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언급도 피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멈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한다면 우리는 그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2:36 참조)

우리는 친구들에게, 교회의 회원이자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대화에 절대 참여하지 말고 항상 진리와 의로움을 수호하려 노력하며, 늘 모범이 되고 남들을 칭찬해야 한다고 권고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에스, 18세, 브라질 상파울로

이러한 것들을 상고함

힘담하기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레위기 19장 18절과 같은 성구를 암기하고, 남의 힘담을 시작하려 할 때 그것을 마음속으로 암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를 닮으려고”(어린이 노래책, 40~41쪽)와 같은 노래를 외워서 마음속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두 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을 잊고, 그 대신 그의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도라 엠, 19세, 필리핀 루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음

힘담하는 것은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면

후회할 말을 하기 전에 재차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면을 찾는 것보다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일리 비, 15세, 미국 유타 주

용기가 필요함

“우리는 입으로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우리는 개인적인 용기와 영적인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한다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남을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힘담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바네사 피, 19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타히티

인도를 간구함

힘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이,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하고 남들이 나에 대해 불친절한 말을 할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습관을 바꾸려는 것은 의로운 소망입니다. 기도로 진지하게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힘과 마음의 변화라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브리트니 에이치, 12세, 미국 유타 주

다음 호 질문

“저는 가정에서 언니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입니다. 저는 늘 그들의 활동이나 대화에서 제외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언니 오빠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2008년 11월 15일까지 보내 주세요.

Liahona, Questions & Answers 11/08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내용과 동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와드(혹은 지부)

스테이크(혹은 지방부)

나는 답변과 사진의 인쇄를 허가합니다.

서명

부모 서명(18세 미만인 경우)

영혼의 독



“비방을 삼갑시다. 중상과 힘담을 삼갑시다. 이러한 것들은 이를 행하는 자들의 영혼에 독이 됩니다. 비방은 비방을

당한 사람보다 비방을 한 사람에게 더 큰 해가 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1873~1970), 대회 보고, 1969년 4월, 96쪽.

해답을 가진 사람

크리스찬 문준의 친구들은 의문점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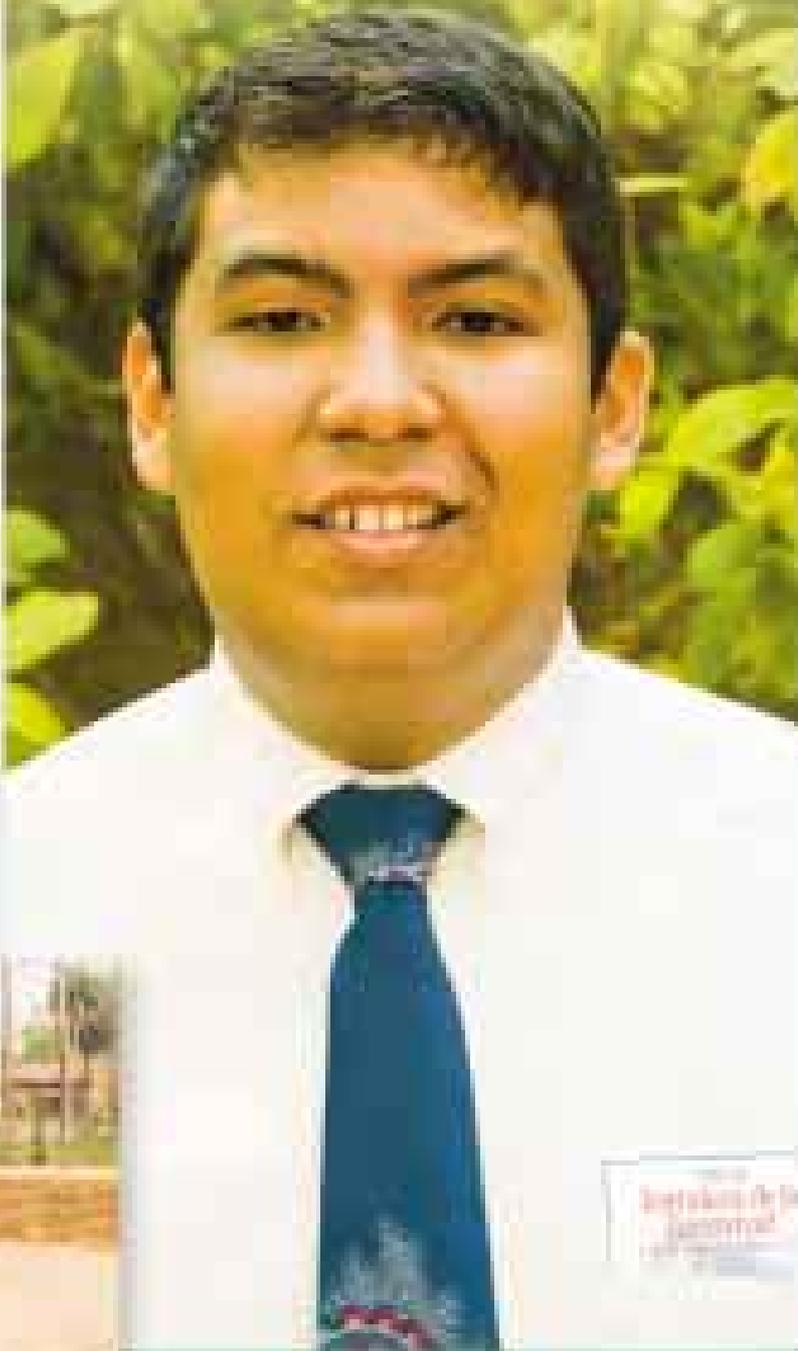
돈 엘 설
교회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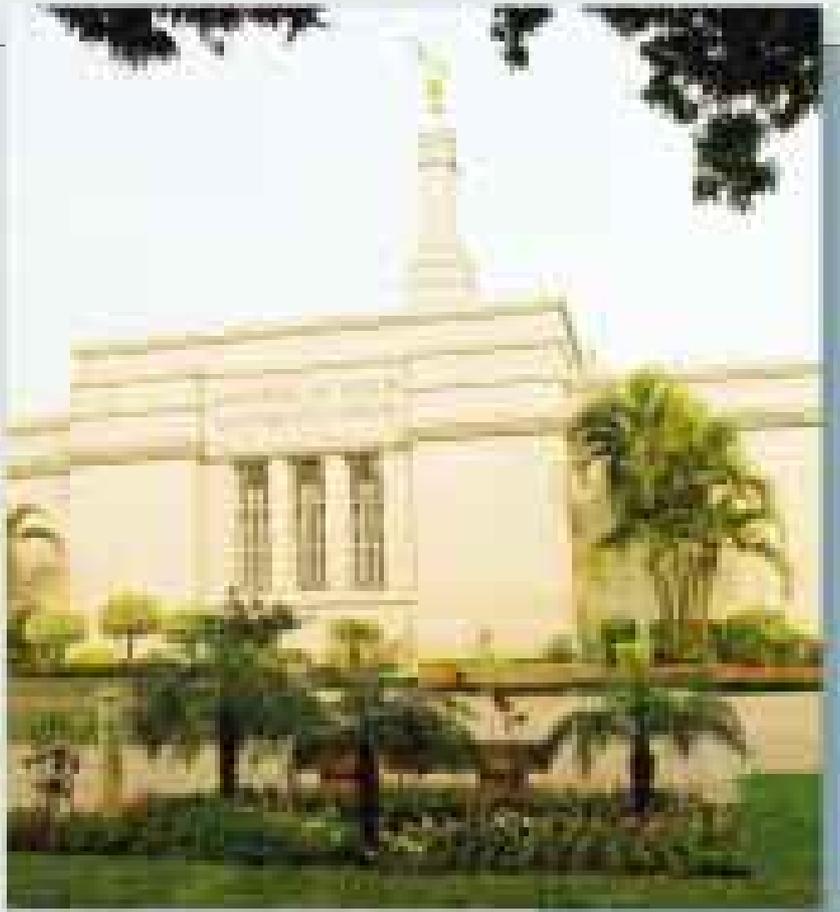
외설물을 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사는 크리스찬 문준은 어느 날 학교에서 게임을
하려고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렸다. 그는 그 전화기에 외설물이
저장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크리스찬은 친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친구가 그런 해로운 사진들을 없애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도록 도왔다. 크리스찬은 그 같은 사진이
얼마나 큰 해를 입히는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는 “네가
아버지라면 네 아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거야”라고
말했다.

크리스찬이 친구에게 한 이야기의 일부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다. 크리스찬은 그 소책자가 그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 책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그는 소책자를
학교 친구 두 명에게 주었다. 그들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필요했던 조언을 그 책에서 받았노라고 이야기했다.

크리스찬을 존중하는
반 친구들은
그를 반장으로 선출했다.





생활 속의 유혹에 맞설 도움을 어디에서 찾는가?

크리스찬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가 그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접하는 유혹, 예를 들면 마약과 술과 관련된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친구는 소수이지만 그들은 모두 인터넷 카페에서 쉽게 인터넷과 외설물에 접속할 수 있다.

학교 친구들은 종종 크리스찬과 그의 형, 지미에게 와서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데, 이 두 후기 성도들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교 친구들은 이 둘의 믿음을 존중한다. 크리스찬을 존중하는 반 친구들은 그를 반장으로 선출했다. 이것은 학교에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크리스찬이 그들을 대표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는가? 크리스찬은 선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 정보기술을 공부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신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성전에 가고, 선교 사업을 나가고, 결혼을 할 것임을 아는 것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도록 도움을 준다.

크리스찬에게는 교회의 교리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교회사에 등장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1834년 시온진영에서 있었던 일, 즉 폭도들이 성도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건은 그에게 용기를 준다. 그날 저녁,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쳐서 폭도들을

흩어 놓았다.¹ 이 이야기를 통해 크리스찬은 그가 두려움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음을 배운다. 주님은 그분을 섬기는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간증을 강화하는가?

크리스찬이 알게 된 한 가지 방법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는 조셉 스미스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교리와 성약 135편 3절을 인용한다. 그는 “조셉 스미스에 대해 알게 된

크리스찬 문준은 학교(맞은편 페이지)와 복음 공부에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지도력을 발휘한다. 위: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성전은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영적인 쉼터이다.





크리스찬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사 이야기 중의 하나는 1856년 마틴 손수레부대의 생존자 구조를 도운 젊은이들의 이야기이다(위 오른쪽). 아래: 스테이크 센터에서 크리스찬과 함께 한 가족(왼쪽부터): 지미(형), 마를렌(어머니), 안테로(아버지), 크리스찬, 그리고 로디(남동생).

것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라고 덧붙인다. 그는 교회를 공부함으로써 “오늘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1856년 마틴 손수레부대의 구조를 도운 젊은이들의 이야기이다. 그 젊은이들은 기진하고 굶주린 개척자들을 업고 차디찬 스위트워터 강을 건넜다.² 크리스찬은 자신이 그런 시련에 처했을 때 그들과 같은 용기를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한다.

인생에서 복음은 왜 중요한가? 크리스찬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해답을 알고 있다. 아론 신권의 제사로서, 그는 카피아타 파라과이 스테이크 코쿠에레 지부의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매일 아침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세미나리 수업은 그의

집에서 이루어지며 그의 어머니가 교사이다.

그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그가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으로 인해 그는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복음이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그는 “저는 경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압니다.”라고 간증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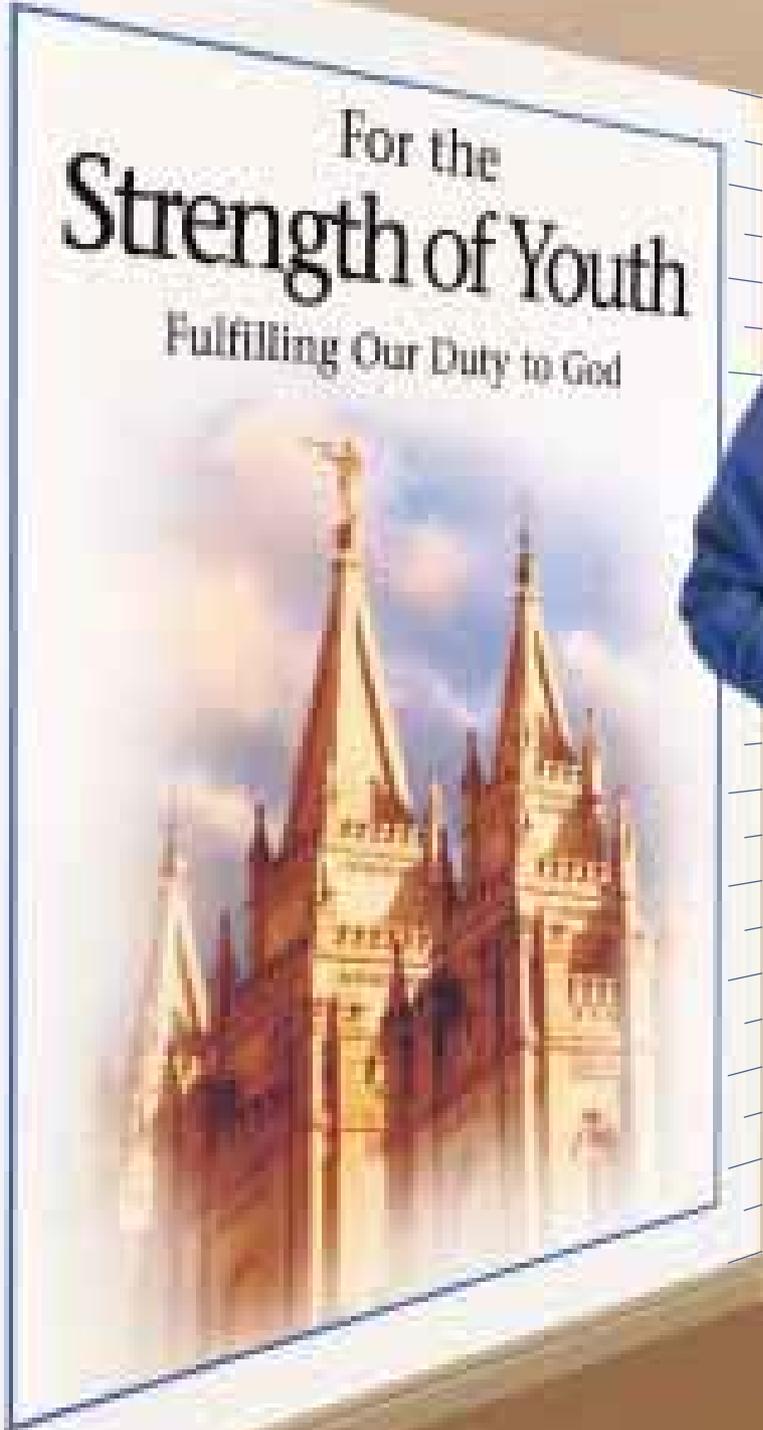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렐(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 2004년), 137쪽 참조.
2. 아론 신권 공과책 3(1995년), 157쪽 참조.



표준

For the
Strength of Youth
Fulfilling Our Duty to God



결코 벗어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15 참조)



**리아호나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곳 바누아투에서 리아호나를 받아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 성도들의 이야기와 함께 교회가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읽는 것이 기쁩니다. 우리는 이 잡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잡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었고, 덕분에 우리는 결코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할 것입니다.
야모스 타로하티 조로, 바누아투

맑은 우물로 이어진 송수관

저는 와드 복음교리반 교사로서 LDS.org 사이트를 훌륭하게 구성하신 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서는 교회 자료를 소유하거나 구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경전과 교회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맑은 우물로 이어진 송수관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국어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익명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말씀

제 삶에 리아호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저는 회원과 비회원의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영감에 찬 말씀들을 봅니다. 제일회장단의 메시지는 우리들에 대한 그분들의 사랑을 나타내고, 후기 성도의 소리는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영이 저를 감동시키고 강화시켜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잡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알며, 이를 가능하게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크리스토프 자이메, 포르투갈

리아호나는 친구입니다

리아호나를 읽을 때면 제가 주님의 이 위대한 사업의 일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리아호나는 제가 교회의 훌륭한 회원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리아호나가 선교 사업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는 제 가장 좋은 친구 중 하나입니다.
갈산잠츠 다쉬다바, 몽골리아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회원이 되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대한 진리들을 배웠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며 영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 줍니다. 교회는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선지자와 사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산나 마르티로소바, 아르메니아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받습니다**

우리의 어린 독자들을 위한 기사로서 세계 어린이들의 신앙을 강화시킬 실화를 찾고 있습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Children's Stories, Liahona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성명, 집 주소, 와드와 스테이크(혹은 지부와 지방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쓸 때 다음의 지침을 고려해 주십시오. (1) 설명하지 말고 보여 주십시오. 되도록 자주, 어린이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2) 어린이의 관점에서 기록하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든 어린이의 생각을 담고 있어야 하며, 부모의 생각은 부모가 말하고 있는 경우에만 포함시킵니다. (3) 실제 어린이들이 유혹이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복음 진리를 발견하거나 적용하는 모습을 기록해 주십시오. 이번 호 친10쪽의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주는 방법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주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느 여름 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날 이른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형과 저, 이렇게 세 사람만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끼리 간단히 요기를 한 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땅거미가 졌는데도 전등을 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여셨습니다. 캐서린 숙모와 빌 삼촌이었습니다. 빌 삼촌의 손에는 체리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체리는 빨갛다 못해 자줏빛이 났고 병 뚜껑은 반짝이는 금색이었습니다. 삼촌은 아버지에게 “맛있을 겁니다. 후식을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후식을 먹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셋이 식탁에 둘러 앉아 체리를 그릇에 덜어 먹는 동안, 빌 삼촌과 캐서린 숙모는 접시들을 정리하셨습니다.

훌륭한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은 언제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체리 선물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빌 삼촌과 캐서린 숙모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할 것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집에서 만든 체리 병조림 한 접시가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시 느끼게 해 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 체리의 맛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제 마음을 알고 염려해 주었다는 느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는 그 선물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빌 삼촌과 캐서린 숙모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선물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선물을 주는 일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셋째, 거기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캐서린 숙모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그 체리 병조림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족들이 누릴 수 있었던 즐거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빌 삼촌과 캐서린 숙모는 그들이 체리를 먹는 것보다 제가 그것을 먹는 것이 그분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을 위대한 것으로 만드는 세 가지 요소는 이렇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며, 희생은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선물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가치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선물을 대가 없이, 기꺼이 우리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주의 속죄라는 선물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시의 하나는 바로 기꺼이 주는 것입니다. ●

“기쁨으로 줌”에서 발췌, 리아호나, 1996년 12월호, 11~14쪽.

생각해 볼 점

1. 아이어링 회장은 그에게 위안을 준 체리 선물을 좋아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특별한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그 선물이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3. 자신의 경험만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 이 활동은 인터넷 사이트 www.lds.org 에서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영어로 된 자료를 원하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다른 언어들은 "Languages"를 클릭한다.



나 주의 종 되어

나 주의 종 되어

마음

능력

생각

힘

묘

눈

눈

명

나 주의 종 되어

“그러므로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삼가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교리와 성약 4:2)

린다 크리스텐슨



위대한 니파이인 선교사 암몬은 “레이맨인들에게 …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앨마서 17:12)하기 위해 그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암몬이 그들의 땅에 들어 서자, 레이맨인들은 그를 묶어 왕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왕은 암몬에게 그 땅에서 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암몬은 왕에게 자신이 그의 종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암몬은 그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왕을 섬겼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의 양떼와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왕과 나누기 위해 그의 생각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복음대로 생활함에 있어서 굳건하고 변하지 않기 위해 그의 힘을 사용했습니다.(앨마서 17~18장 참조)

초등학교 노래 “용감한 종”(어린이 노래책, 96쪽)의 가사는 암몬처럼 되라고 말해 줍니다.

주님은 즐겨 일하는
용감한 종 필요하시네
예수의 가르침 따르며
봉사하는 종 필요하시네

우리는 암몬이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대하거나 돕는 것과 같은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고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복음을 배우는 데 우리의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할 때에 굳건하고 변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주의 종 되어
용감히 성약 지키리
주님 나를 믿으시니
진리 편에 서리라

활동

두 개의 타원을 잘라내고 뒷면을 마주보게 하여 폴로 붙인다. 네 개의 직사각형을 잘라내고 각각의 직사각형 가운데의 점선을 따라 반으로 접으면서 뒷면을 마주보게 폴로 붙인다. 모빌의 맨 윗부분에 쓸 동그란 원을 잘라내고 표시된 곳에 구멍을 뚫는다. 타원형 액자 안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거나 그림을 그려 넣는다. 타원형 액자와 네 개의 정사각형 위쪽에 각각 구멍을 뚫는다. 모빌을 완성하기 위해 줄이나 털실을 사용한다.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함을 상기시켜 줄 만한 곳에 모빌을 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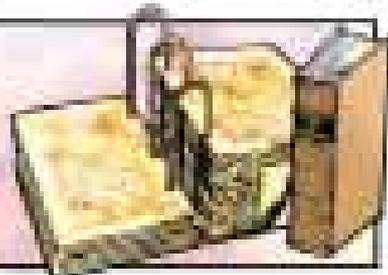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어린이들이 역할극을 할 수 있도록 안식일 활동 목록을 준비한다.(초등학교 6, 20과, 보충 활동 3, 87쪽 참조) 교리와 성약 4편 2절을 읽은 후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봉사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각 반에 다른 어린이들을 위해 역할극을 준비하도록 하는 활동을 준다. 각 역할극이 끝나면 어린이들에게 이 활동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봉사하도록 돕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반복한다. 각 어린이에게 종이 한 장과 연필 또는 색연필을 준다. 어린이들에게 안식일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느끼도록 돕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려 보라고 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돕는 한 방법인지 간증한다.

2. 복음 그림 패킷 307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설교함)을 보여주고 베냐민 왕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린이들에게 모사이사서 2:17을 펴 보라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이 구절은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들을 가르친 부분임을 상기시킨다. 함께 그 부분을 읽는다. 우리가 이웃에게 봉사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하게 되는지 토의한다. 교리와 성약 4편 2절을 참고하여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봉사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반주자가 노래나 찬송가 한 곡을 연주하게 한다. 각 반별로 음악이 흐르는 동안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작은 공이나 부드러운 물체를 준다. 음악이 끝났을 때 물체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한 가지 나누게 한다. 모든 어린이들이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하는 것임을 간증한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생긴 일**



후기 성도들은 미주리 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838년 가을, 보그스 주지사는 주 의용군(군인)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미주리 주를 떠나도록 무력을 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몰몬들은
 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조셉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그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수감자들을 조롱했고 피할 곳도 없는 빗속에 그들을 내버려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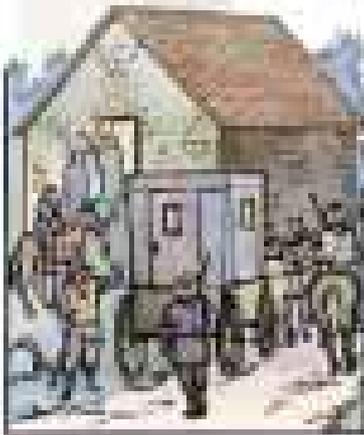
의용군 사령관은 알렉산더 더블루도니반 장군에게 조셉과 다른 수감자들을 총살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 행위요. 나는 당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소.

다음날, 감시병들은 수감자들이 파웨스트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동안 그들을 유심히 감시했습니다. 조셉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아있는 그를 보게 되어 기뻐했지만 그가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슬펐습니다. 조셉은 그들을 걱정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보호하고 나를 적들의 손에서 구하셔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실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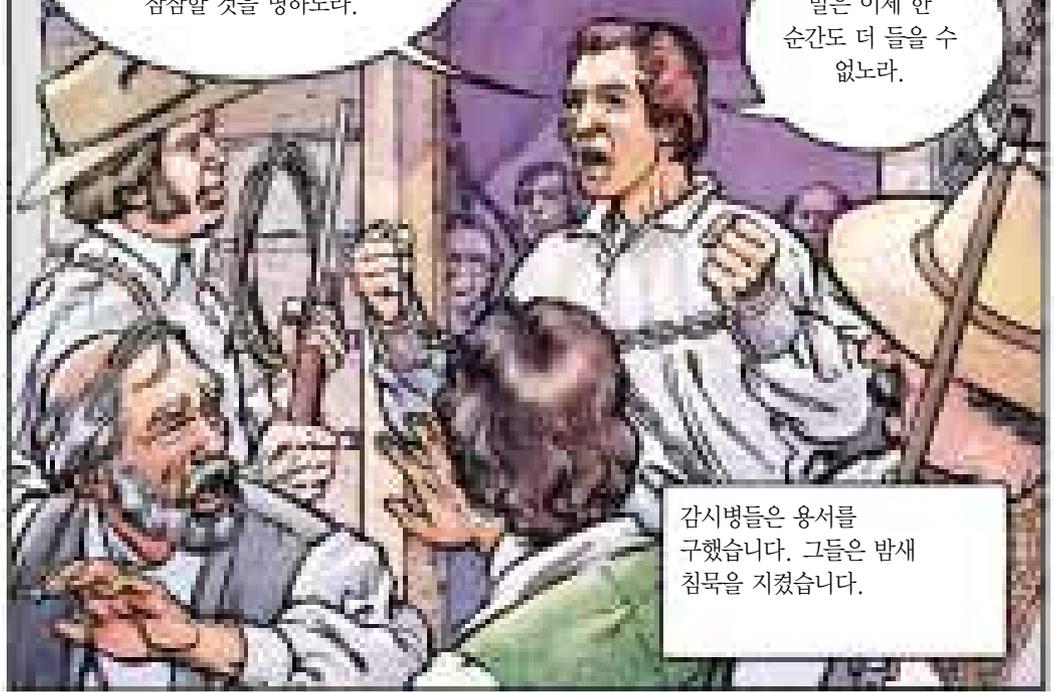
의용군은 많은 후기 성도 수감자들을 인디펜던스로 끌고 간 다음 리치몬드에서 있는 감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에 조셉과 다른 몇몇 사람들은 리버티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감시병들은 수감자들을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어느 날 밤, 리치몬드에서 있는 감시병들은 그들이 후기 성도들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 했습니다. 조셉은 일어서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들을 꾸짖고 잠잠할 것을 명하노라.

그런 말은 이제 한 순간도 더 들을 수 없노라.



감시병들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른 감시병들은 수감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다른 군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감시병들이 술에 취했습니다. 그들은 조셉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타고 탈출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난 한 잔 한 다음 잠자리에 들 테니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6개월 가량을 감옥에서 보낸 후, 조셉은 일리노이 주 퀸시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간증 장갑

장갑을 끼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장갑은 일하는 동안
손을 보호해 줍니다. 어떤
장갑은 손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다른 장갑은 운동 경기를 할 때
깁니다. 이 활동에서 여러분은
간증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기억하도록 “간증 장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증은 성신에 의해 주어지는
복음의 진실함에 대한 영적인
증거입니다. 간증에는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믿겠다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것들이 참되다는 지식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간증의 필수 요소들



나의 간증

1.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2.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심을 안다.
3. 나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상에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몬경을 번역했다.
4.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오늘날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임을 안다.
5. 나는 이 교회가 계시를 받는 살아 있는 선지자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안다.

만드는 방법: 흰 장갑을 구한다. * 이 장에 있는 그림을 오려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장갑을 낀다. 간증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말하면서 그림을 장갑의 엄지 손가락에서부터 붙여 나간다. 그림을 찌찍이나 테이프, 풀, 옷핀, 똑딱 단추 또는 줄을 이용해 장갑에 붙일 수 있다. 간증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간증을 나눌 때, 여러분은 “저는 ... 임을 간증 드립니다.” 또는 “저는 ... 임을 압니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욱 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

*이 활동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장갑은 꼭 흰색이 아니어도 된다. 장갑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종이 장갑을 만들 수 있으며 또는 그림들을 여러분의 손가락에 테이프로 붙일 수도 있다.

도움을 주면 행복해요



“너는 너의 모든 봉사를 시온에 바칠지니”(교리와 성약 24:7)

지니 랭카스터
실화에 근거함

조 나단은 차에 올라 형 마이크 옆에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집에 남아 지난 주에 생일 선물로 받은 새로운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들 모두 집회소로 가서 와드 청소의 날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가야 하죠?” 조나단은 차에 진공 청소기를 싣고 계시는 엄마를 도우며 물었습니다.

“재미있을 거란다.” 엄마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 집회소를 사용하잖니. 이따금씩 그곳을 청소하는 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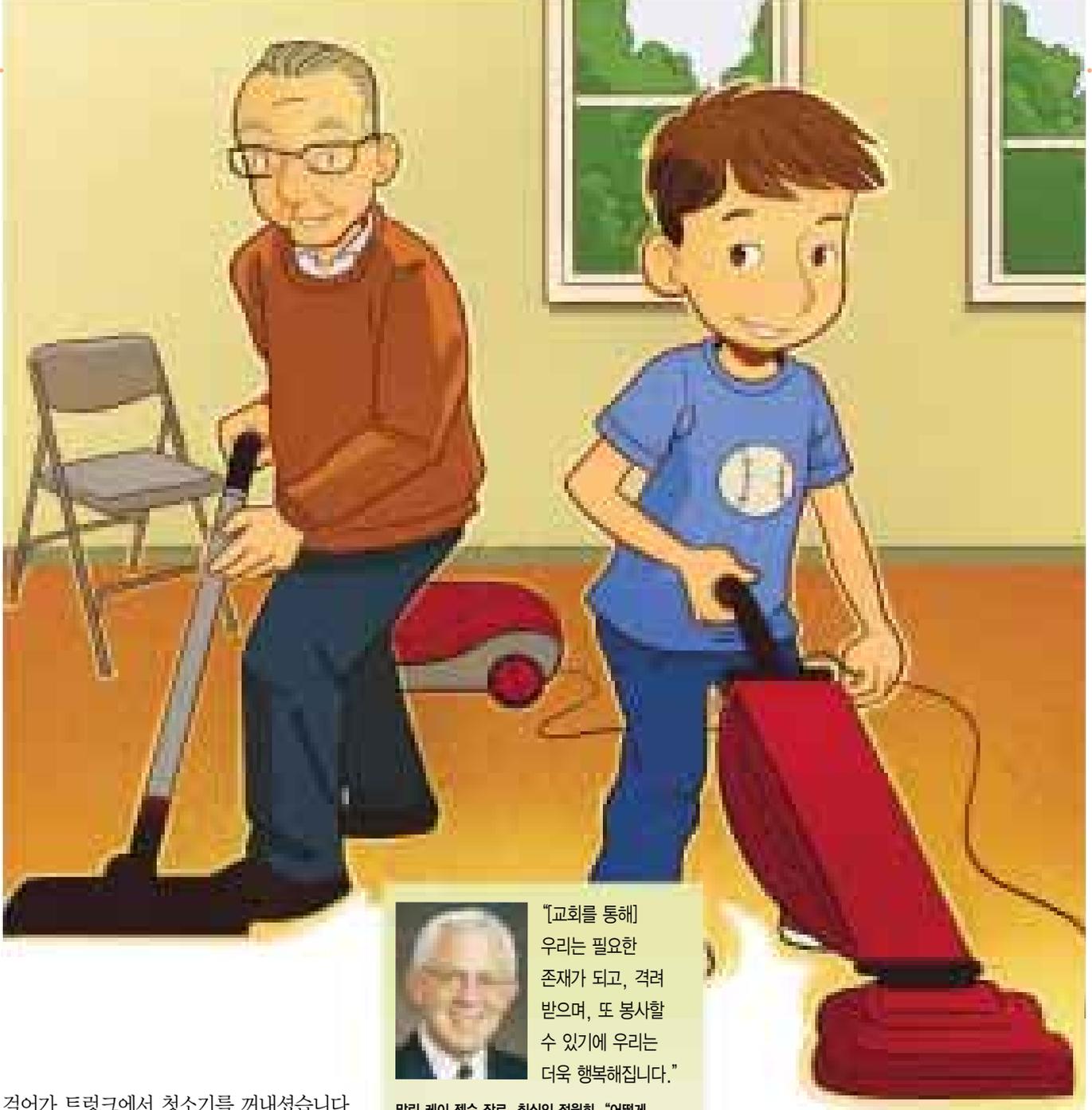
조나단은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집들과 나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차를 교회 주차장에 세우실 때, 조나단은 라슨 형제님이 그들 차 옆에 그분의 차를 주차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라슨 형제님이 여기서 무얼 하시는 거지?” 조나단은 의아했습니다.

라슨 형제님은 최근 백혈병이라 불리는 일종의 암 때문에 매우 편찮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조나단은 부모님이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할 때 라슨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라슨 형제님은 병원에 계시느라 아주 오랫동안 집을 비우셨습니다.

조나단은 늘 라슨 형제님을 따랐습니다. 형제님은 조나단의 할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많으셨지만 조나단과 이야기하기 위해 일부러 들르셔서 그의 학교 생활과 운동 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번은 조나단의 경기를 보러 오시기까지 했습니다.

조나단이 자동차에서 내리자 라슨 형제님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녕, 조나단.” 라슨 형제님은 차 뒤쪽으로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되고, 격려
받으며, 또 봉사할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 행복해집니다.”

말린 케이 젠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리아호나, 2000년 8월호,
23쪽.

걸어가 트렁크에서 청소기를 꺼내셨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그는 청소기를 밀어 교회 안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조나단,” 엄마가 부르셨습니다. “이것 좀 도와 주겠니?” 엄마는 차 뒤에서 청소기를 꺼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럼요, 엄마.”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그는 엄마가 청소기를 꺼내시는 것을 도와 재빨리 주차장을 가로질러 밀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조나단과 마이크는 라슨 형제님 곁에서 일했습니다. 조나단은 피곤해서 쉬려고 여러 번 멈췄지만, 라슨 형제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도울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그렇지 않니.”

라슨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나단은 마음속의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슨 형제님이 돕는 동안 행복을 느끼실 수 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와 주어서 고맙구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천만에요. 오는 것에 대해 불평해서 죄송해요. 저는 청소기를 돌리는 데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몰랐어요.”라고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

주님 가족 주셨네

With joy ♩ = 76-88

Words and music:
Matthew Neeley

F B \flat F B \flat F C7

F C7 F Dm B \flat F

1. 하 나 님 에 겐 가 족 이 있 네 너 와 나 모 두 하 나 님 의
 2. 아 버 지 는 가 족 의 감 리 자 자 너 들 에 두 복 음 가 르
 3. 어 머 니 는 가 족 을 들 보 고 자 자 너 를 사 랑 으 로 양
 4. 가 족 에 대 한 사 랑 봉 사 로 내 가 족 에 게 모 범 보

C7 F C Dm F

자 너 우 리 모 두 지 상 에 태 어 나 가
 치 너 하 나 님 사 랑 나 누 기 위 해 가
 하 며 락 종 과 기 도 사 나 누 사 위 해 를
 리 며 락 언 쟂 가 가 나 부 모 가 되 어 가

B \flat F C7 F B \flat

족 과 살 며 - 배 위
 족 기 기 도 인 도 하 네
 녀 에 계 계 가 르 치 네
 족 에 계 계 말 해 주 리
 가 족 을

© 2008 by Matthew Neeley. All rights reserved.
 This song may be copied for incidental, noncommercial church or home use.
 This notice must be included on each copy made.



C⁷ F B^b F G⁷ C⁷

주 셧 네 하 나 님 뜻 따 라 살 수 있 도 록

F B^o C⁷ Dm B^o Gm

사 랑 나 님 주 시 려 주 님 가 족

F C⁷ 1. 2. 3. F B^b F C⁷

주 셧 네

4. F B^b F B^o F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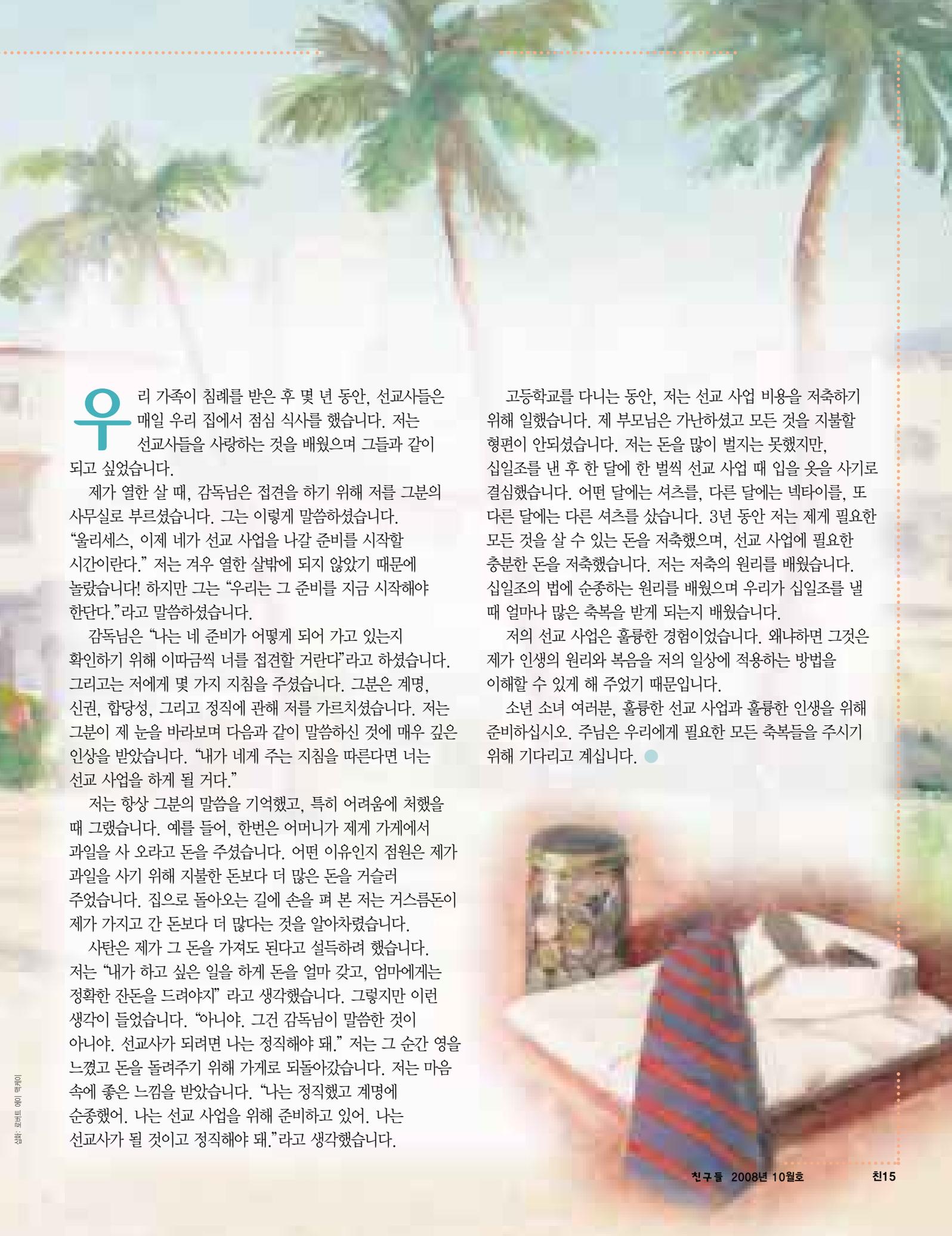
삽화: 필립스 루크, 배경 © ARTBEATS

선교 사업을 준비함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사무엘상 7:3)



칠십인 정원회의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브라질 지역
회장단에서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음;
제니퍼 매디, 교회
잡지



우 리 가족이 침례를 받은 후 몇 년 동안, 선교사들은 매일 우리 집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으며 그들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열한 살 때, 감독님은 접견을 하기 위해 저를 그분의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세스, 이제 네가 선교 사업을 나갈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다.” 저는 겨우 열한 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그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독님은 “나는 네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따금씩 너를 접견할 거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계명, 신권, 합당성, 그리고 정직에 관해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 눈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게 주는 지침을 따르면 너는 선교 사업을 하게 될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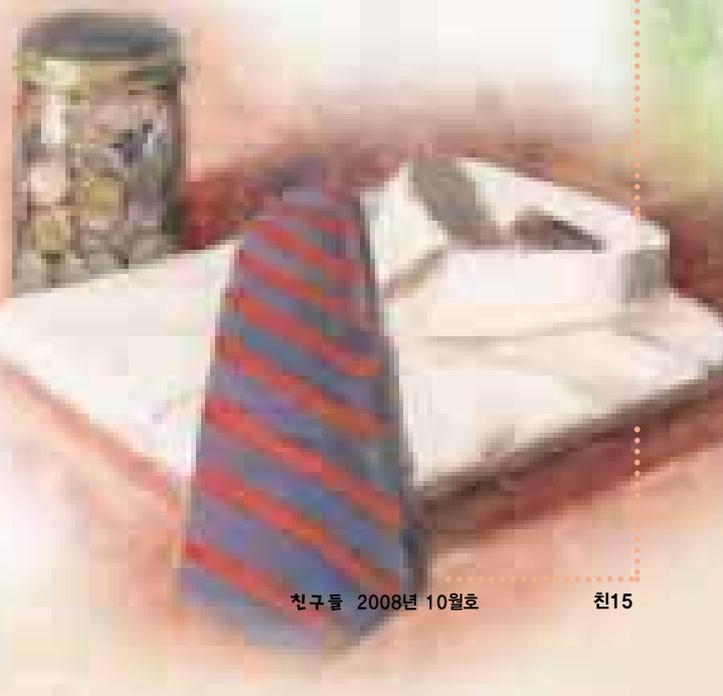
저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고,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은 어머니가 제게 가게에서 과일을 사 오라고 돈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점원은 제가 과일을 사기 위해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을 펴 본 저는 거스름돈이 제가 가지고 간 돈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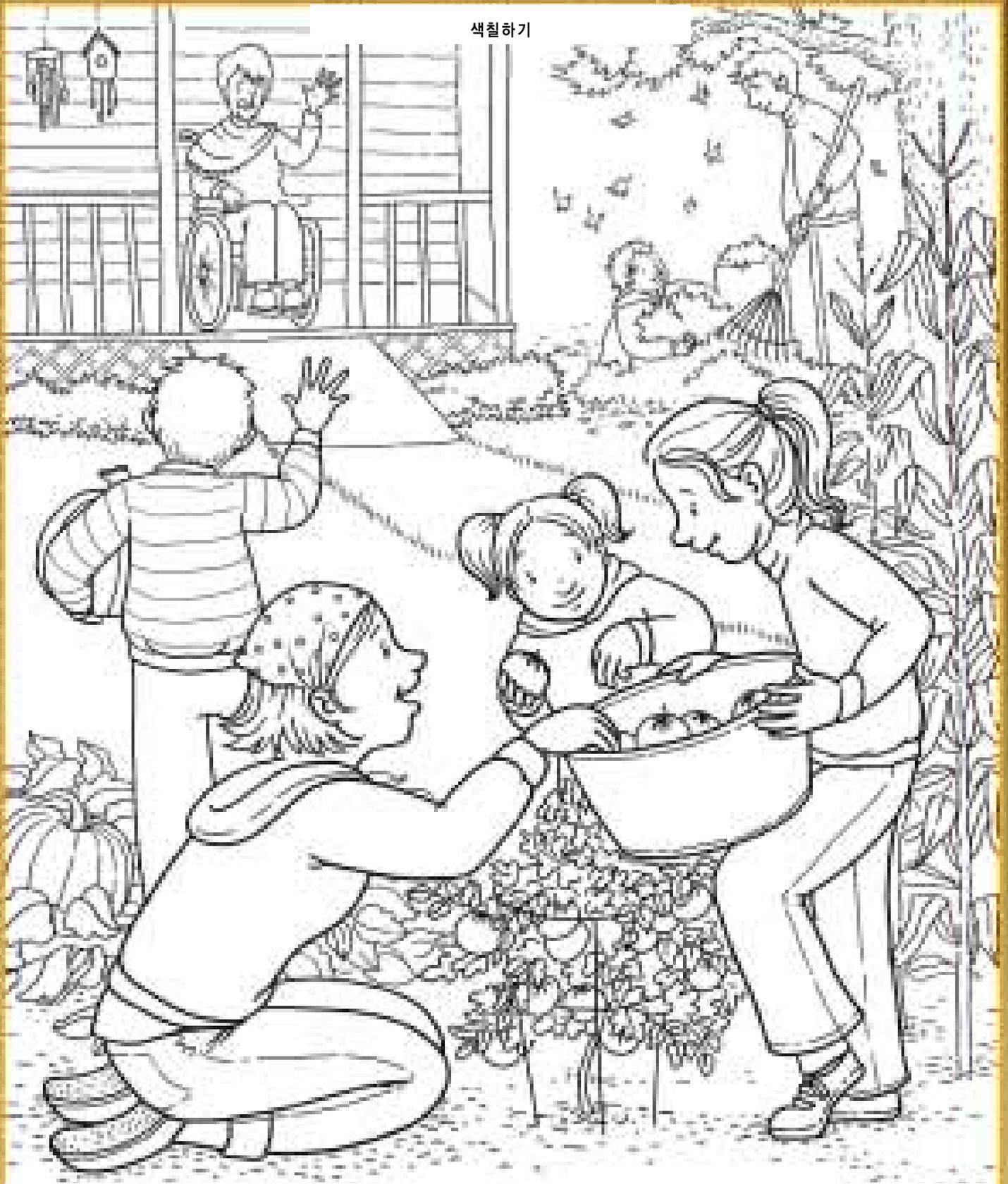
사탄은 제가 그 돈을 가져도 된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돈을 얼마 갖고, 엄마에게는 정확한 잔돈을 돌려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감독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야. 선교사가 되려면 나는 정직해야 돼.” 저는 그 순간 영을 느꼈고 돈을 돌려주기 위해 가게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마음 속에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직했고 계명에 순종했어. 나는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 나는 선교사가 될 것이고 정직해야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는 선교 사업 비용을 저축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가난하셨고 모든 것을 지불할 형편이 안 되셨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십일조를 낸 후 한 달에 한 벌씩 선교 사업 때 입을 옷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셔츠를, 다른 달에는 넥타이를, 또 다른 달에는 다른 셔츠를 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저축했으며, 선교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저축했습니다. 저는 저축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는 원리를 배웠으며 우리가 십일조를 낼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지 배웠습니다.

저의 선교 사업은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인생의 원리와 복음을 저의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소녀 여러분, 훌륭한 선교 사업과 훌륭한 인생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나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삼가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교리와 성약 4:2)